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調查經緯/225

社會背景/229

方 言/236

民 謠/251

說 話/269

信 仰/294

調查經緯

1974年 문교부의 대학정책에 따라 제이름을 잃었다가 1980年 國語國文學科라는 이름을 되찾고 나서, 처음 실시하는 年次調查이다.

調查對象地인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는 일주도로변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海岸部落이다. 生業은 半農半漁로 比較的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마을이다.

이번 調查에는 國語教育科의 玄容駿 教授(信仰)를 비롯, 本學科 金洪植(方言), 金榮敦(民謠), 金永和(社會背景), 金昞澤(說話), 姜榮峯(方言) 등 여섯 분의 教授가 참가하였고, 高光民(信仰), 尹致富(民謠), 玄承桓(說話)등 선배들이 도와 주었다. 다음은 班別 調查學生 名單이다. ()속은 재학년).

社會背景：李仁九(3), 金宰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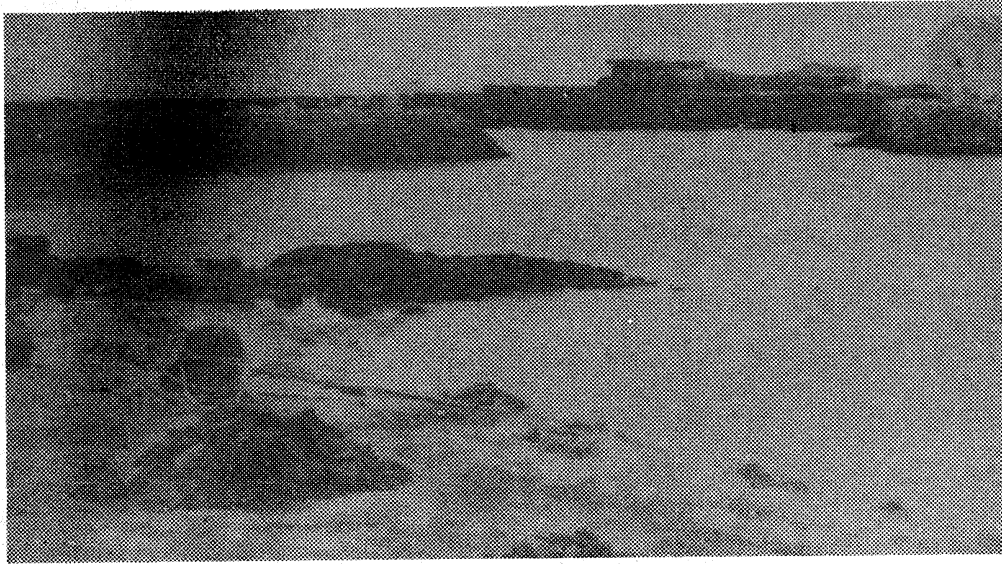
方 言：金法順(3), 李明順(3), 金愛貞(3), 金順子(2), 金美貞(2), 南孝丰(1)

民 謠：文奇訓(3), 金東閏(2), 高德順(2), 鄭用文(1), 安姬貞(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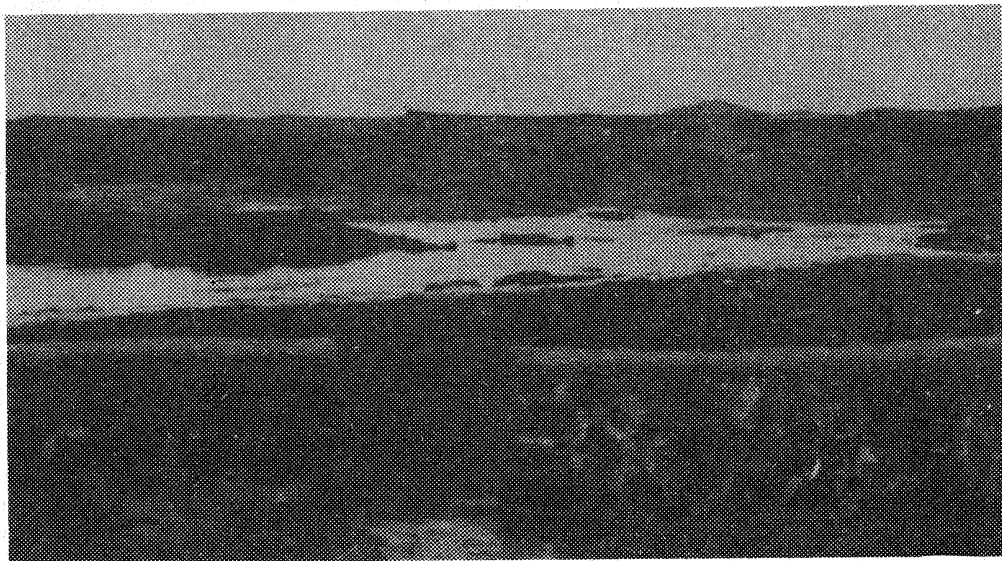
說 話：金美辰(3), 吳姬淑(2), 金令蘭(2), 梁柄哲(2), 文愛善(1)

信 仰：李正勳(3), 金順姬(3), 安由美(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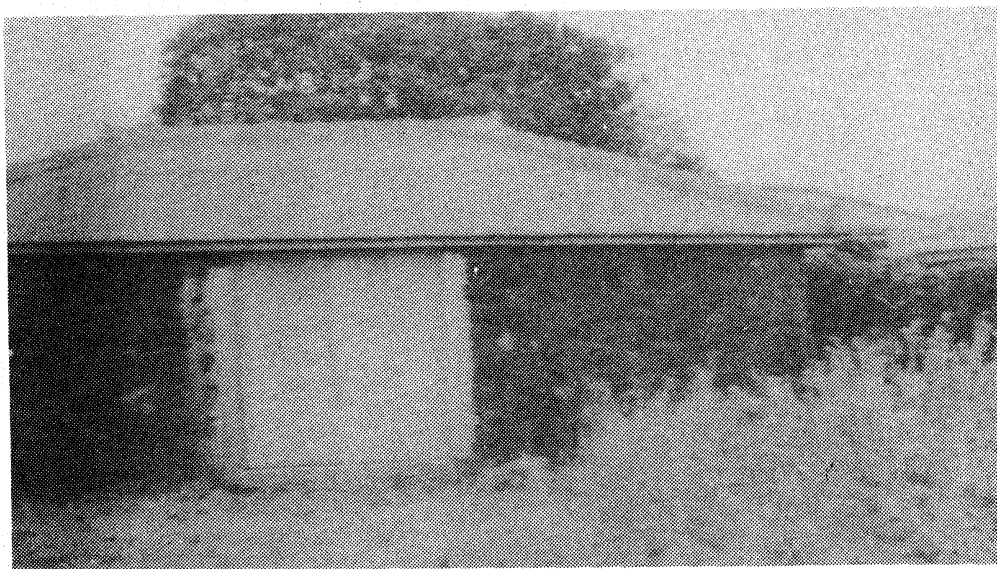
1985年 8月 16日부터 8月 19日까지 3박4일간의 調查에서 調查者들이 보여준 성실함은 오래 기억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調查者들의 노력이 이처럼 빛을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杏源里長을 비롯한 里民 여러분의 적극적인 協助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개맛



지새물



윗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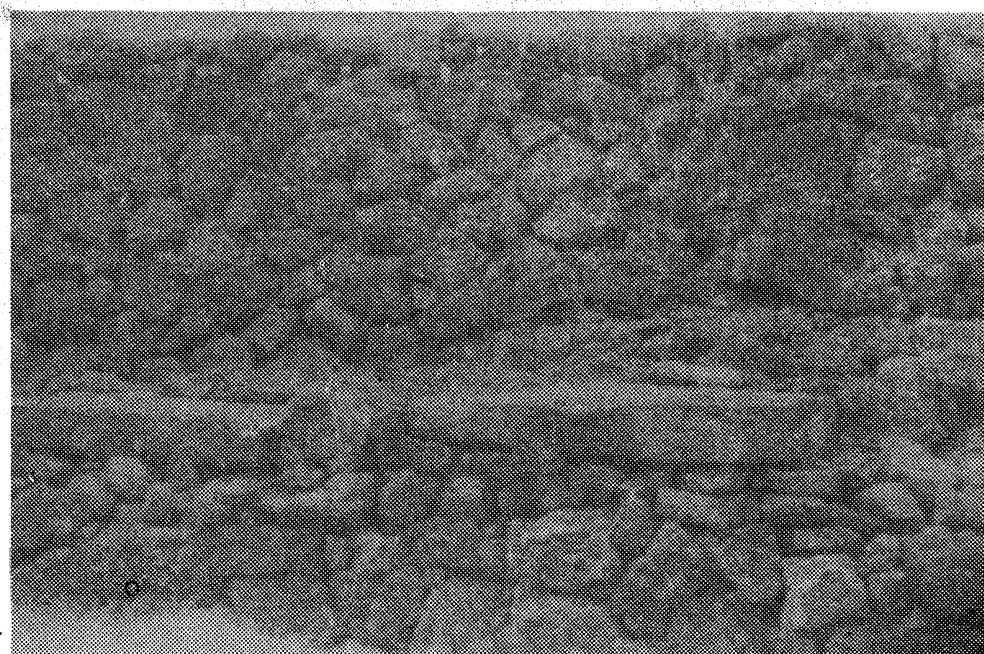
윗당내부
무신도



아랫당



아랫당내부





더뱅이물



환해장성

社 會 背 景

目	次
I. 地理的 環境	Ⅲ. 人文概況
II. 歷史的 背景	IV. 產業構造

I. 地理的 環境

濟州市에서 東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는 杏源里는 일주도로변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海岸部落으로, 行政區域上 北濟州郡 舊左邑에 속한다.

총면적 1019.3ha인 이 마을은 1979년 행정구역 재편성에 의해 5個洞에서 6個洞으로 나뉘었으며 해안선이 길고 또한 이웃마을인 漢東里와 月汀里에 비해 바다가 넓다.

인접부락으로는 2.5km 東쪽에 漢東里와 1.2km 西쪽에 月汀里가 있다.

마을 뒷편 南西쪽으로 연대봉과 둔지오름이 한라산을 뒤로 하고 있으며 화산 폭발 시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분화구 모양의 돌산을 이룬 <높은술>·<뒷당술>·<도롱곶술>·<생언이술>·<톤술>들 중에는 그 깊이가 2m 이상인 술(수월)도 있어 잡목이 무성하여 특이한 지형을 이룬다.

해안과 접해 있는 까닭으로 <밖거믄여>·<고래머리여>·<너븐여> 등 10여 가지나 되는 여가 있으며 또한 <도금물>·<더뱅이물>·<굼뱅이물> 등의 10개 소가 넘는 물이 現存하나 食水로 사용하는 <물랭이혹>·<지새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雨期에나 물이 고인다.



물랭이흑

土壤은 대부분 沙壤質로 되어 있어 마늘과 같은 특용작물이 주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해양자원이 풍부해 소라·전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천초를 켈 적에는 300여 명의 海女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나갈 정도로 해초가 풍부하다.

Ⅱ. 歷史的 背景

村老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기 1400년경 金海金氏 회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620년경 <굼벵이물>에 정착하여 야산을 개간하고 수렵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전 南平文氏에 이어 全州李氏 등이 1300番地境인 <새똥빌레> 地境에 이주 정착하면서부터 農業·漁業을 중심으로 部落을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漢東과 杏源의 경계를 이루는 <더벵이물>에서 漢東人 김천충(범천충)이 혼자 살다 떠났는데 그 후손들이 이 부락을 형성하였다고도 전해지는데 확실치 않다.

杏源里는 인접마을에 비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예로부터 <어등개>(魚登浦)라 불리워졌었다고 하며 지금도 村老들 사이에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杏源리라 한 것은 村老에 의하면 〈武州里〉(月汀)에서, 〈三陽〉으로부터 모셔온 漢學者인 元峯先生이 〈魚登浦〉를 지나가다 牧童에게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목동이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르켰다고 하며 元峯先生이 또한 이 마을을 ‘杏花村’이라 부르면서부터 전하여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한다.

이렇게 口傳되어 내려오다 서기 1887년 行政區域 擴張으로 杏源里로 정식 改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本里는 地域的 與件으로 해서 人屍가 자주 海岸으로 떠밀려 왔었다고 하며 그래서 隣接部落인 漢東里와 軋轢이 잦았으며 지금의 海岸境界가 月汀里 보다 漢東里 쪽으로 넓은 까닭도 여기에 緣由한다고 한다.

本里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었다고 하는데 제주의 만리장성이라 불리워지는 폭 1m, 높이 1.5m 되는 현존하는 성터와 망동산이라는 봉화대가 그 당시를 말해준다. 그리고 日帝治下에서는 이 마을 海女들이 강제징집되어 수산물 채취를 강요당하고 수확물을 강압해 갔다고 하며 그 당시 해녀들의 휴식처인 불턱은 해녀들이 울분을 삭이던 곳이라 한다. 또한 남자들은 비행장 건설 등 강제징집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4·3事件으로 인해 피해가 컸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月汀里와 杏源里의 경계를 이루는 〈짚은개〉(探浦洞) 지역에는 15戶 정도가 주거하였다고 하며 4·3事件으로 인해 兩里에 흡수되어 지금껏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

Ⅲ. 人文概況

杏源里는 6個洞 12個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家口는 317戶이고 人口는 1,445名이다.

〈表1〉 家口 및 人口

1985.8. 현재, 杏源里 事務所 提供

家 口	317 戶	農 家	315
		非 農 家	2
人 口	1,445 名	男	635
		女	810

濟州島部落誌(Ⅲ)

邑事務所 資料에 의하면 전체 317가구 가운데 46戶가 單獨家口로 나타나 대다수 농촌 자녀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야기된 1인 1가구 형태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表2〉 姓氏分布(세대주별)

金	姜	高	李	漢	康	朴	任	文	張	尹	安	林	梁	千	蔡	誅	朱	吳	禹	申	元	玄	鄭	崔	宋	白	天	嚴	黃	計
314	176	174	164	125	99	90	41	35	33	31	13	9	8	8	7	5	5	5	4	4	4	4	3	3	2	1	1	1	1	1,413

〈表3〉 年齡別 人口現況

연령 구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計
男	26	65	102	106	78	39	27	34	26	31	43	14	9	27	627
女	39	68	116	112	73	36	20	30	29	51	69	25	21	97	786
計	65	133	218	218	151	75	47	64	55	82	112	39	30	124	1,413

1983년 조사자료, 舊左邑事務所 提供

〈表3〉으로 보아 55세 이상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주목되며, 특히 男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歷史的 事件과 現代의 移農現象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20代 이후의 젊은이들의 거주지는 里內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女性들이 장수하는 편이며 男子들 보다 女子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里內의 公共機關으로는 里事務所와 月汀里 所在 舊左中央國民學校가 있고 국민학교 병설 幼稚園이 있으며 그 외에 農協分所가 있다. 團體로는 부녀회, 청년회, 재일동포 친목회가 있어 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月汀里 100番地에 위치하고 있는 舊左中央國民學校는 1923년 사립중앙보통학교로 설립된 이래 1950년 지금의 校名으로 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月汀里와 杏源里의 학생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데, 1982년 11학급이던 것이 1985년 현재는 8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表4〉 國民學生 現況

구 분	학 년	1	2	3	4	5	6	計
	杏源	8	11	7	11	20	23	80
	男	9	10	14	15	19	15	82
	女	17	21	21	26	39	38	163
計		29	22	17	25	24	25	136

1985. 8. 현재. 舊左中央國民學校 提供

〈表4〉에서 杏源里 學生만을 볼 때 저학년으로 갈수록 學生數가 감소하고 있어 人口問題에 따른 家族計劃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좌중앙국민학교는 1924년 5월 10일에 開校하여 6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 수는 3,648名(男 2,481名, 女 1,167名)에 달한다. 총면적 12,071.4m²에 大地가 3,392.4m²이고 체육장이 8,679m²이다.

里民들의 학력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은 못되나 교육열은 대단히 높다.

〈表5〉는 구좌중앙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원아들의 보호자 교육정도이다.

〈表5〉 보호자 교육정도

구 분	학 력	고 등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무 학
父		15	12	8	•
母		2	8	29	•
計		17	20	37	•

1985. 8. 현재, 舊左中央國民學校 병설유치원 提供

부모들 중에 아버지는 교육정도가 높은 반면 어머니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두 早期教育에 대한 열의가 높음을 말해 준다.

里内の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이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변소개량, 하수구설치, 농로개설, 안길포장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文化施設로서는 전체 가구에 TV 90%, 냉장고 80%가 구비되어 있고, 신문

을 구독하는 가구가 50戶, 수동식 전화 3대가 설치되어 있어 本里가 현대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宗教現況을 보면 조계종 연봉사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행원교회가 있으며, 천주교회가 있으나 극히 소수의 신도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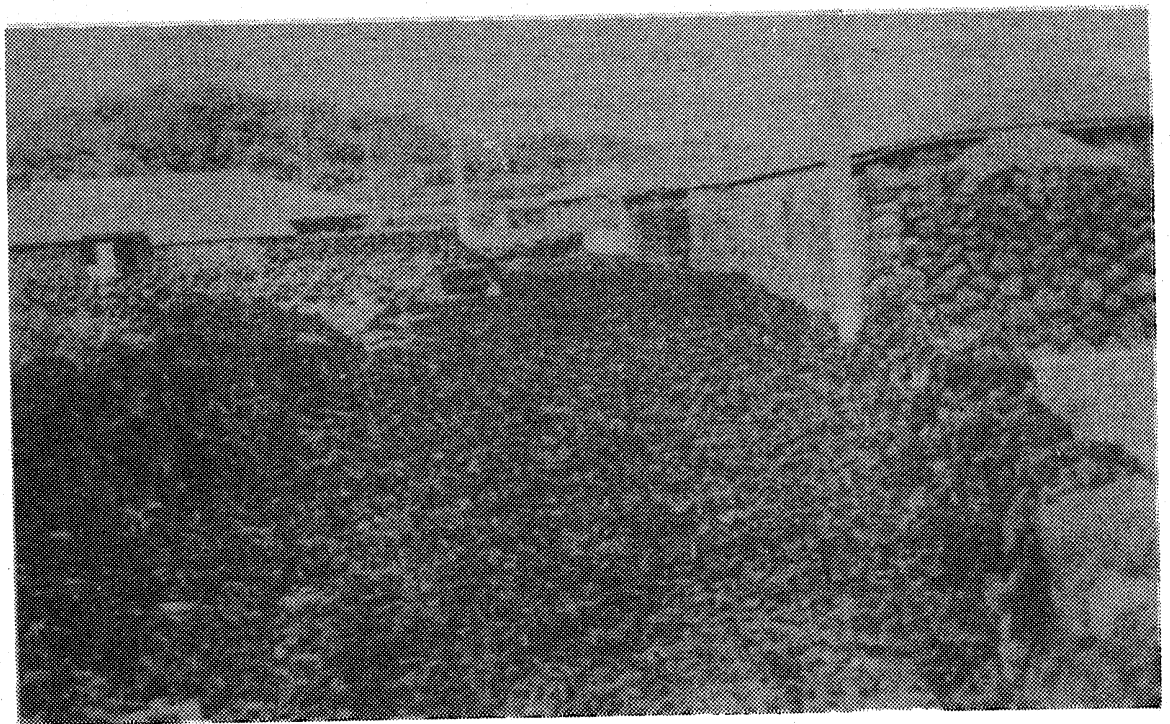
巫俗信仰으로는 포젯단(浦祭壇), 윗당(南堂할으방), 아랫당(南堂할망) 등이 있는데 음력 정월 초하루에 제를 지내는 浦祭는 마을 里長이 관할하며 各洞에서 선출된 제관 7명이 마을의 무사와 안녕을 비는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IV. 産業構造

杏源里는 284萬 m^2 나 되는 漁場을 갖고 있으며 동력선 7척, 무동력선 1척 외에도 海女들이 있어 漁村契에 소속되어 있는 총가입자가 210名에 달한다.

漁場은 3區域으로 나뉘져 있으며 2個洞씩 각 구역에서 작업을 한다. 水産物로는 소라·전복·미역 등이 主種인 데, 특히 어등개미역은 어데서나 1등품으로 쳐주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연소 해녀 24세로부터 60세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하나, 그 수에 있



감태공동작업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어서는 40대가 가장 많고 작업 또한 활발하다. 해녀들은 1일 평균 1~2만원, 한 달 평균 1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채취류 말고도 魚種으로서는 숭어, 방어, 우럭 등이 主種이며 1일 漁船의 평균 소득액은 20~30만원이다.

陸地에서의 主所得源은 마늘이며 파종면적이 66萬m²나 되고 다음으로 보리, 유채, 참깨, 콩 등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表6〉 面 積

計	밭(田)	林 野	기 타
1,019.3 ha	255	681.5	82.8

1985. 8. 현재. 杏源里事務所 提供

戶當 경지면적은 0.8ha이며 戶當 농가소득은 3,744천원(85년 현재)이다.

이와같이 本里는 農漁兼業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고루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할 때에도 水産物로서 생활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

〈表7〉 농기계 보급율

차 량	경 운 기	동력분무기	예 초 기
1	65	260	14

1985. 8. 현재. 杏源里事務所 提供

杏源里는 마을 목장이 1,157萬m²로 4月에서 11月까지를 放牧期間으로 하며 주로 소, 말이 대종을 이루는데 소가 375두이고 말은 68두이다.

대체적으로 住民들은 勤勉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느 부락과 마찬가지로이다.

方 言

目 次

- | | |
|-------------|-----------|
| I. 물고기명(魚名) | Ⅲ. 지명(地名) |
| Ⅱ. 풀이름 | |

○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이 보고는 1985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 동안 구좌읍 행원리에서 조사한 魚名·植物名·地名을 그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다.

행원리는 해안부락으로 여느 마을과 같이 반농반어의 형태를 지닌 부락으로, 물고기 이름과 병행하여 식물 특히 초목류의 어휘조사에 안성마춤이라 기대하고 조사에 임했다.

조사의 능률을 올리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에 따른 어류도감 및 식물도감을 준비하는 한편,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국문학보 제4집~제7집 및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제8집 등을 참고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어명과 식물명 조사조 등 2개조로 편성하여 준비된 도감을

이용,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류도감은 그래도 물고기가 선명하게 나타나 쉽게 알아보고는 方名을 채록할 수 있었으나 식물도감인 경우는 제보자가 한결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게 그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었다.

어명인 경우는 뱃일에 종사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배를 부리고 있는 어부를 제보자로 선정하고는 어류도감을 펼쳐 보이며 方名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리 준비한 녹음기에 녹음하는 한편, 도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는 필기하기도 하였다. 몇 사람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틀린 부분이 정정되기도 하였으며 조사 종류가 불어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서 바다이름을 얻게 된 것은 별도의 소득이었다.

식물이름인 경우는 주로 부녀자를 택했다. 처음에는 식물도감을 보여주면서 방언명을 알려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농사 이야기, 또는 주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면서 제보자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한창 마늘 작업을 하고 있어, 어느 집에 갔을 때 한꺼번에 많은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일이다. 비교 보완이 되어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명에서는 땅이름 뿐만 아니라 바다이름, 여이름까지를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편의를 위해 방언형과 병행하여 표준어를 밝히려 했다. 어명인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식물명인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표준어를 밝혔다.

I. 물고기명 (魚名)

번호	표준어	방언
1	멸치	참멸치
2	전어	전어
3	수염상어	비게
4	괭이상어	도랭이
5	악상어	모도리

濟州島部落誌 (Ⅲ)

번호	표준어	방언
6	복상어	비근드리, 비근더리, 비근다리
7	얼룩상어	개상에, 존다니
8	삿징이상어	죽상어
9	돌묵상어	막쟁이
10	전자리상어	수거리, 수구리
11	별상어	저울도리, 제울드리, 저울드리
12	까치상어	죽상어, 죽
13	귀상어	양지기, 귀오도리, 귀상어, 톱상어, 귀모도리
14	홍어	가오리, 개우리(개오리), 창개오리
15	흰가오리	먹가오리, 먹개오리
16	매가오리	제비가오리, 제비개오리
17	눈통멸	눈통이멸
18	정어리	징어리
19	셋줄멸	고드리
20	잉어	독대기
21	밴댕이	뒤퍼리, 주박
22	황어	가조기
23	철갑동어	깡(깡)복쟁이
24	달고기	돈치(별명 : 허풍시) 허풍쟁이
25	돛돔	돌돔
26	점줄우럭	지넘
27	꼬리치	맹치
28	능성어	구문쟁이
29	갈견이	잉어
30	붕메기	맹치
31	자바리	다금바리
32	황쏘가리	바다맹치
33	가물치	줄락
34	게르치	가조기
35	동갈치	고질맹이, 주네부리
36	뽕치아제비	고질맹이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번호	표 준 어	방 언
37	항알치	고질맹이
38	새날치	날 치
39	날 치	날 치
40	학공치	고질맹이, 주네부리
41	청가시고기	다 치
42	점매가리	벨 뚱
43	도파눔	가시우럭(술치우럭), 동치
44	까치돔	북바리(참바리), 각돔
45	황 돔	홍옥치(황돔), 생선돔
46	붉 돔	참 돔
47	감성돔	벨돔, 감은돔, 감생이, 감문돔
48	벵에돔	구 릿
49	큰입우럭	눈통이우럭
50	작은입우럭	갯우럭
51	돌 돔	물 툷
52	아홉동가리	논쟁이(수심이 얇은 곳)
53	여덟동가리	논쟁이(수심이 깊은 곳)
54	달고기	돈 치
55	드렁허리	장 에
56	애꼬치	고질맹이
57	꺼 지	방장우럭
58	자바리	북바리
59	세줄얼개비늘	술맹이
60	큰줄얼개비늘	술맹이
61	옥 돔	오토미
62	줄만새기	시 라
63	젯방어	부 리
64	꼬리돔	각재기
65	동갈통돔	술맹이
66	실붉돔	도 미
67	녹줄돔	도 미

濟州島部落誌 (Ⅲ)

번호	표준어	방언
68	황줄감정이	망 치
69	범 돔	알롱베기
70	자리돔	자 리
71	망상어	망 치
72	놀래기	술맹이, 어랭이
73	용치놀래기	술맹이(♂), 어랭이(♀ 검은빛)
74	실용치	코생이, 어랭이
75	점다랭이	고드리
76	샛 돔	돔
77	전갱이	각재기
78	부시리	부리, 히라수
79	흑 돔	웁 이
80	붉은매기	매 치
81	독가시치	다 치
82	황정볼락	방쟁우럭, 곰팽이우럭
83	눌치볼락	검팽우럭
84	불감팽	냉내기우럭
85	독 지	물 썩
86	별넙치	도다리
87	풀넙치	십뎃개
88	노랑가자미	도다리
89	칠서대	섯
90	쥐 치	객주리(수심이 얇은 곳)
91	말쥐치	객주리(수심이 깊은 곳)
92	거북복	깡복쟁이
93	자지복	검 복
94	까치복	심방복
95	물가자미	
96	황매 통이	맛살치
97	쓸종개	맹 치
98	무태 장어	보들락

번호	표준어	방언
99	봉장어	아나고
100	참바리	불바리
101	불바리	불바리

제보자

- | | |
|-----------------|-----------------|
| ① 이 일 평(남, 89세) | ⑤ 강 경 일(남, 35세) |
| ② 박 영 찬(남, 55세) | ⑥ 이 기 항(남, 39세) |
| ③ 한 복 만(남, 40세) | ⑦ 차 거 운(남, 35세) |
| ④ 강 세 신(남, 50세) | |

II. 풀이름

- | | | |
|--------------|------------------|-----------|
| 가. <—기> | 15. 개자리 | 30. 갓짱냥 |
| 1. 사시래기 | 16. 월 리 | 31. 불랫냥 |
| 2. 해비래기 | 17. 임 느리 | 32. 삼동냥 |
| 3. 구렁태기 | 18. 새우리(정고지) | 33. 멀리냥 |
| 4. 눈빨래기(익모초) | 19. 허공고사리 | 34. 탈 냥 |
| 5. 미넛기(미나리) | 20. 배염고사리(발풀고사리) | 35. 젓피냥 |
| 6. 감부기 | 21. 자굴고사리 | 36. 세빋냥 |
| 7. 시래기 | 22. 총각고사리 | 37. 므멀냥 |
| 8. 숨배기 | 23. 백태우리 | 38. 개범블냥 |
| 9. 배채기 | 24. 청돌라리 | 39. 생이조적냥 |
| 10. 방돌래기 | 25. 책가시리 | 40. 맹개냥 |
| 11. 꽃개기 | 26. 모실부리(빨리) | 41. 구럼빋냥 |
| 12. 두레기 | 27. 대우리 | 42. 독고리냥 |
| 나. <—리> | 다. <—냥> | 라. <—냘> |
| 13. 고사리 | 28. 풀감냥 | 43. 진 냇 |
| 14. 미국대우리 | 29. 밧꼬지냥 | 44. 북담냇 |

45. 닥 낱
46. 송악낱
47. 깻팍낱 (낱)
48. 동박낱
49. 툇쿠실낱
50. 퐁 낱
51. 자구낱
52. 개 고치낱
53. 칠 낱

마. <一풀>

54. 진 풀
55. 돌풀(돌풀)
56. 청 산쿨풀
57. 장애대덕풀
58. 감남풀
59. 딸감남풀
60. 물 풀
61. 장덕풀
62. 고름풀(등대풀)
63. 던대풀
64. 장둑풀
65. 치장풀
66. 함박풀
67. 소낭풀
68. 외 풀
69. 향미풀
70. 콩 풀

바. <一꽃>

71. 운동꽃(운동꽃)
72. 할망(하르방꽃)
73. 임유리꽃

74. 맛물꽃
75. 배염꽃
76. 손바닥꽃

사. <一기타>

77. 범지리가시
78. 귀까시
79. 마농쥬
80. 방 품
81. 난 초
82. 쇠비늘
83. 갠느스꽃(꽃)
84. 저순살이
85. 대 축
86. 고 치
87. 물 외
88. 춤 외
89. 논생이
90. 제완지
91. 춤비늘
92. 꼴 왓
93. 스앵이
94. 꽃 개
95. 섭시리
96. 콧대산니
97. 신(썸부르)
98. 산 디
99. 모 시

100. 배빌레기줄
101. 드른마농
102. 복숭개
103. 먹볼래
104. 보리탈

105. 개엄지탈
106. 물꽃개
107. 딸외남줄
108. 메마줄
109. 본 지
110. 자굴(자굴)
111. 가메기바농
112. 신사라
113. 군 지
114. 수리대
115. 임모초
116. 뱀 술
117. 감비역
118. 아쥬배기꽃
(아쥬배기꽃)
119. 능갱이꽃
120. 돛 비
121. 덧뿌찌개
122. 뭇 술
123. 삼 마
124. 숨배기여름(너름)
125. 고 랫
126. 피
127. 소 새
128. 부 재
129. 어 움
130. 드렁박

제보자

- ① 강 인 돈(18(여, 88세)
- ② 고 계 인(여, 48세)
- ③ 윤 기 엽(여, 72세)
- ④ 이 용 옥(여, 64세)
- ⑤ 장 군 열(여, 36세)
- ⑥ 현 옥 순(여, 54세)

Ⅲ. 지명(地名)

1. -밭(왓, 팻)型

- ① 지픈밭 : 주위의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
- ② 다람쥐왓 : 다람쥐가 살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③ 모기왓
- ④ 질왓 : 땅이 기름진 밭. 眞田.
- ⑤ 거름팻
- ⑥ 남당팻 : 南堂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
- ⑦ 우영팻 : 인가(人家)의 부근에 있는 밭.

2. -도型

‘도’라는 것은 입구(入口)를 나타내는 제주도 특유의 접미사이다.

- ① 고시머름도
- ② 물개거름도 : 한동리와의 경계되는 곳
- ③ 먼모살도
- ④ 오저도
- ⑤ 남죽이도

3. 一술(수월)型

술 또는 수월은 덩불과 돌등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숲을 이른다.

- ① 막은술
- ② 툇술 : 나무가 따로 조금 심어져 있어 붙은 이름
- ③ 높은술
- ④ 생언이수월
- ⑤ 정등머들수월

4. 一물型

‘물’은 통, 못과 함께 인위적, 자연적인 샘물등을 말한다.

- ① 대물
- ② 도근물
- ③ 굽뱅이물 : ㉠ 굽뱅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김뱅이물이 와전된 이름, 행원사조인 김씨 할아버지가 샘을 만들어 그 물을 먹었다는 데서 유래.
- ④ 사농물(사롱물)
- ⑤ 끄럼물(끄렁물) : 물이 깨끗치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⑥ ㄴ는 곳물
- ⑦ ㄴ막물
- ⑧ 더뱅이물
- ⑨ 지샛물

5. 一못型

- ① 켜나못(켄나못) : 켜(켄) 남이 있는 못(남은 나무의 방언)
- ② 가문시죽은못 : 검은 소가 빠져 죽은 뒤로 붙여진 이름
- ③ 식시름못 : 사람은 먹지 않고 소만 먹기때문에 붙여지는 이름

- ④ 벌레못
- ⑤ 숨은이못

6. 一빌레型

‘빌레’란 넘적 편편한 암반을 말한다.

- ① 검색빌레
- ② 석똥빌레 : 지대가 높아서 소가 올라가다가 힘이 들므로 똥을 누고야 올라갈 수 있으므로 유래된 이름.
- ③ 상관이빌레

7. 一통型

- ① 알통
- ② 흑통(혁통) : 옛날엔 이곳의 흙을 파서 웅기를 구웠고 지금은 물이 고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③ 범주리통 : 범윤이가 샘을 만들어 그 물을 먹은데서 유래됨
- ④ 속ㄴ냉이통
- ⑤ 막개통 : ‘막개’라는 별명을 가진 김해김씨가 만든 통
- ⑥ 윤하르방통 : 윤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만든 통
- ⑦ 들래통
- ⑧ 음뺨통

8. 一목型

- ① 금산목
- ② 쉬영목 : 사람들이 오다가다 잘 쉬는 장소에서 붙여짐
- ③ 한갓목
- ④ 누무린목
- ⑤ 상대밥목

⑥ 한모살목

⑦ 거부목

9. —동산(산)型

① 벼락맞은동산 : 벼락이 떨어져 소가 죽었던 동산으로 행원목장안에 있는 지경이름

② 노래기동산 : 종종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동산

③ 뽕낭동산 : 뽕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

④ 북망산

⑤ 평동산

⑥ 지드림동산 : 해녀들이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게 해달라고 빌거나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바닷가의 언덕

10. —머새 型

‘머새’란 수월과 비슷하며 비교적 돌이 많은 곳이다.

① 당머시(모새)

② 돌통머새 : 돌 무더기가 많이 있는 사이에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11. —머를(모를)型

① 정지머를

② 고시머를 : 고씨가 조상의 산을 쓴데서 유래됨

12. —당型

‘당’은 제물을 차려놓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비는 곳이다.

① 웃당

② 알당

13. —이型

- ① 생언이(송연이) : 솔남(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 ② 알뜰이 : 좌가장이라고도 하는데 좌씨가 목장을 만듦으로써 유래되었으며 마을에서 아래쪽에 있으므로 알뜰이라고 함.
- ③ 남죽이(남직이)

14. —디型

- ① 알뽕디 : 알편편디가 와전되어 알뽕디로 불림 아래쪽에 위치한 편편한 곳 이라는데서 붙여진 이름
- ② 개맛디
- ③ 구시난뽕디
- ④ 것난디

15. —여型

물에 잠긴 바위인데 밀물때는 보이지 않지만 썰물때는 보이는 수가 있음

- ① 박검은여
- ② 샛검은여
- ③ 진검은여
- ④ 고래머리여
- ⑤ 묵새여
- ⑥ 만서여
- ⑦ 개우쿨여
- ⑧ 등굽은여 : 사람이 등을 굽힌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⑨ 너븐여 : 넓적 편편한 모양때문에 붙여진 이름—알너븐여
- ⑩ 오저여 : 물새들이 많이 날아와 앉고 새끼를 치고 하에서 붙여진 이름
- ⑪ 닥그른여(닥거린여) : 닳을 걸기 좋게 생겼으며 실지로도 닳을 걸기도 함

- ⑫ 큰여
- ⑬ 알노린여, 웃노린여 : 황색계통의 해초가 많이 있어서 붙은 이름
- ⑭ 롤탄여
- ⑮ 즈장여(즈진여) : 작은 바위 여럿이 모여 있어서 붙은 이름
- ⑯ 투여 : 조금 떨어져 있는 여
- ⑰ 서근여(석은여)
- ⑱ 상자린여
- ⑲ 지방여
- ⑳ 옷당는여
- ㉑ 빼 룡여(배룩여)
- ㉒ 방앗여 : 연자방아의 몸체처럼 넓적하고 둥글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
- ㉓ 숨은여
- ㉔ 알생굴여, 웃생굴여
- ㉕ 너븐태왁여 : 태왁모양으로 생긴 큰여
- ㉖ 큰ㄷ마리여 : ㄷ마리 모양으로써 크게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

16. -덕型

해녀들이 옷을 벗어 두기도 하고 물질하다가 쉬기도 하는 바위

- ① 동글락덕
- ② 큰ㄷ마리덕 : 큰ㄷ마리는 행원리의 바다이름이며 -덕과 -여에 둘다 붙여 말한다.
- ③ 뒗터지덕
- ④ 더뎡이물덕

17 -코지型

‘코지’란 陸地에서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물위에 나타나 보이는 바위이다.

- ① 흰돌코지

- ② 민돌코지
- ③ 망나라코지
- ④ 누룩코지 : 노루모양으로 생긴 바위

18. -개型

‘개’는 작은 浦口, 배를 대는 곳을 이른다.

- ① 어등개 : 어등포(魚登浦)라고도 하며 행원리의 옛이름이다.
- ② 아칭개
- ③ 평풍개
- ④ 지풍개(지픈개) : 바닷물이 깊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⑤ 물래낭개

19. -알型

- ① 남당알
- ② 등대알

20. -소型

‘소’는 바다가 육지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이른바 작은 灣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북대기소
- ② 안소

21. -모살型

- ① 한포살 : 모래가 많아서 붙은 이름
- ② 사생이모살
- ③ 쇠누눈모살 : 소들이 여름철에 가서 누워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22. 기타

- ① 우름심이 :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므로 붙여진 이름
- ② 드래비
- ③ 마마낭수리
- ④ 문드러니
- ⑤ 굴뚝구석
- ⑥ 보거넙(보구넙)
- ⑦ 연대봉 : 마을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마을에 알리기 위한 봉화를 올렸던 곳
- ⑧ 정등머들(정등머드리)
- ⑨ 소양남도덕(두덕)
- ⑩ 개장터
- ⑪ 말랭이요
- ⑫ 킨머채
- ⑬ 독가름
- ⑭ 벌렛기
- ⑮ 속마냉이
- ⑯ 하나질성찬
- ⑰ 독대기
- ⑱ 모살것
- ⑲ 개머리
- ⑳ 큰드마리
- ㉑ 하르방깨
- ㉒ 숭앳통바우
- ㉓ 아옴(아흠)
- ㉔ 뒗더지

提報者

윤태방(84세) 김종익(51세) 고계인(48세) 고도수(41세) 장근열(36세)

民 謠

目 次
I. 勞動謠 II. 童謠

杏源里 調査에서는 짧은 調査期間이었지만 勞動謠와 童謠에 力點을 두어 採錄하였다. 勞動謠는 특수한 民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提報者들이 부르는대로 採錄하였다.

現場論的 調査方法에 따라 口演狀況, 提報者 解說, 辭說, 註解 등이 요구되나 지면관계로 사실소개에 머무는 점이 못내 아쉽다.

表記는 提報者들이 發音에 충실했으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에 준하였다.

I. 勞動謠

1. 밭 밟는 노래

1-1 어러러월월 어러러월월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월월

어러러러월월 재게몰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월월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짐승덜아 혼저나걸라 월월 어러러러월월

(강신자, 여·54)

1-2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러 뱅뱅돌아 나간다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월월 어러러러월월 뱅뱅 돌아나간다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톨덜아 월월 돌아나오라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어러러러월월 월월허민 돌아나온다 월월 어러러러
월월월월

(강미춘, 여·64)

1-3 간디가고 온디온다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뱅뱅 요톨덜아 돌멍 요
구석 저구석 뱅뱅돌멍 불러보자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저톨톨앙 혼저빳 불리라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요놈의 톨 자국자국마다 무쇄으름 올라 인간백성 먹을거 아니가 어러러러
월월 어러러러월월

(김영열, 여·58)

1-4 간디나가고 온디나오라 어러러러월월 어러러러월월 월월월월 어러러러
월월
축진축진 즈근즈근 불라그네 월월 월월 어러러러월월
출랑출랑 이놈의톨덜아 재게덜걸엉 혼저꿏나게 월월 어러러러월월 어러
러러월월

(홍복순, 여·56)

1-5 어허허 저거톨덜 잘들여톨라 월월이여이여 월월월월호여호라
이톨덜아 여름훈철 너희덜도 먹을것호고 주인도 벌엉벙이고 속속호게 걸어
주라 어어어 월월호라
간디가고 온디오고 말만호 이짐승덜아 싸움지말고 발로차지말고 소곡소곡
걸어그네 더운디확확 불령나가자 어어어 월월호라
[저 톨덜 다 막으라 다 돌아남저 저 톨 막으라 저 톨 막으라] 어어 월월호라
좁씨덜 재게빠라 좁씨덜 잘빠라 저톨덜 도망감저 도망감저 저톨막으라 저
톨막으라 이톨막으라 저톨막으라 이어어어 월월호라 어야뒤야

훈바탕은 놀고가고 훈바탕은 걷고가자 에이월월하랴
이물덜아 으으 얼른덜른자국낭 튼튼하게 이밧볼령 고고리랑 마깨만씩 덜
드렁만씩 어어월월하랴 일년에 훈번이로구나 이물덜아 어어어 월월하랴
(강대지, 남·64)

1-6 이걸 훈민 솟아나온다 어어어 월월이여 요물덜아 월월하여 요구석저구
석 들어가게 볼르라 월월 어러러월월
어러러러 월월이여 어어월 월월하랴 월월 간질가고 온질온다 어어어어 월
월월 돌돌돈는 몰아 훈저가게 어어어 월월라
(김영월, 여·72)

2. 김매는 노래

2-1 검질짓고 굴너른바되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앵헤야 뒤여로구나
 어기야뒤야 방에로다
 하영먹젠 산전에올랑
 마의정당 췌정당줄에
 발을걸련 유울엄서라
 어기야뒤야 웅헤로다
 앵헤야 뒤야로구나
(김영열, 여·58)

2-2 검질짓고 굴너른바되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훈저가민 언제나오나
 앵헤야 뒤여로다

먼뒗사름	듣기나 좋게
즈껏사름	보기나 좋게
앵헤야	뒤여로구나
앵헤야	뒤여로구나
놈의나첩광	소낭괴 뵈름
소린나도	살을메 웃고
앵헤야	뒤여로다

(강신자, 여·54)

2-3 지세어멍광	오름에 돌은
둥글당도	살을메 난다
산천으로	느리는물은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일천만석	다썩은물가
방에 방에	물방에야
일천간장	썩은물은
콩콩지는	물방에야
쫓아올라	눈으로나네
어기야뒤야	산이로구나
검질손이랑	즈직즈직노리꼭
어이여차소리에	베놓아간다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얼만먹엉	배부른밥을
양손받아	빌엄서라

서월서월	어떤게서월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설리사난	서월일러라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놈의나첩광	소낭기벼름
서월물은	인썩은물이어
벼름이나도	먹을게웁다
설리사난	서월일러라
어야어야	산이로구나
산넘어간다	물넘어간다

(강미춘, 여·64)

2-4	검질짓고	굴너른बाट
	엥헤야	뒤여로다
	조라우이	벗이로구나
	산천초목	젊어나지고
	엥헤야	산이로구나
	요내몸은	늙어나지고
	어야어야	뒤여로구나

가면가고	말머는만다
초신을신고	시집을간다
엥헤야	뒤여로다
엥헤야	뒤여로다
어기여차뒤야	산이로고나
검질짓고	굴너른बाट
초롱초롱	양산초롱
불뼉힐줄은	몰라나진다
양산초롱	불밝히소
어기여차	뒤여로다
임도자고	나도자니
엥헤야	뒤여로다
엥헤야	뒤여로다

(홍복순, 여·56)

2-5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간다
어야뒤야	어야뒤야
에헤야뒤야	에헤야뒤야
언제가민	이쇠상을살건고
오늘해도	일락서산
다뜨도록	넘어간다
어서검질	불강불강매라
앞으로훈저	매여가게
에헤야뒤야	에헤야야
어허어뒤야	어허어뒤야

(한기월, 여·84)

2-6 이야뒤야	방에로구나
요검질을	훈저나매영
저명에나	미쳐나가자
삼각산을	치돌앙보라
느지나같은	모물광산뒤
선제비영	애돌암서라
앵헤야	방에로구나
언제나가민	저제나가리
삼각산을	치돌앙보라

(김영월, 여·72)

3. 맏돌노래

3-1 이여이여	이여도후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놈의ㄴ레야	빙빙돌라

어깨도아프고	박박꼴앙
어린아기덜	먹여살리고
훈저키왕	크저랑
어멍아방	이아기덜아
철모른	이아기덜아
언제민	어멍아방
허리띠	줄라메멍
키왕	나두민
언제민	죽어서
부모공을	가플소냐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아이고	이ㄱ레
영안ㅎ민	못살전가
이리갓다	저리갓다
이여도ㅎ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강대지, 남·64)

3-2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요ㄱ레야	이여이여
ㄱ레나	지거라
훈저꼴앙	저디나가게
ㄱ레두섬	ㄱ들베꼴앙
훈저꼴앙	저디나가자
이여이여	이여
이여이여	이여도ㄱ레

(김영월, 여·72)

3-3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이여이여	이여도ㅎ라

이여이여	이여도 ¹ 하 ² 라
훈저 ³ 꼴 ⁴ 앙	저 ⁵ 녁이나 ⁶ 하 ⁷ 영 ⁸ 먹 ⁹ 게
이여이여	이여도 ¹ 하 ² 라
이여이여	울 ³ 멍 ⁴ 밥 ⁵ 을 ⁶ 먹 ⁷ 더 ⁸ 라 ⁹ 마 ¹⁰ 는
무 ¹ 정 ² 하 ³ 나 ⁴ 네	성 ⁵ 아 ⁶ 니 ⁷ 진 ⁸ 다
이여 ¹ ㄴ ² 래	꼴 ³ 아 ⁴ 나 ⁵ 보 ⁶ 자
이여이여	이여도 ¹ 하 ² 라

(강미춘, 여·64)

4. 방아노래

4-1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삼 ³ 돌 ⁴ 이 ⁵ 아 ⁶ 래	개 ⁷ 당 ⁸ 장 ⁹ 칩 ¹⁰ 의
쇠 ¹ 쿨 ² 방 ³ 에	새 ⁴ 글 ⁵ 럼 ⁶ 서 ⁷ 라
가 ¹ 시 ² 오 ³ 름	강 ⁴ 당 ⁵ 장 ⁶ 칩 ⁷ 의
쇠 ¹ 쿨 ² 방 ³ 에	새 ⁴ 글 ⁵ 럼 ⁶ 서 ⁷ 라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 ¹ 방 ² 에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 ¹ 방 ² 에	이여도 ¹ 방 ² 에

ㄷ ¹ 리 ² 아 ³ 래	개 ⁴ 당 ⁵ 장 ⁶ 칩 ⁷ 의
쇠 ¹ 쿨 ² 방 ³ 에	새 ⁴ 글 ⁵ 럼 ⁶ 서 ⁷ 라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이여이여	이여도 ¹ 방 ² 에
ㄷ ¹ 리 ² 아 ³ 래	개 ⁴ 당 ⁵ 장 ⁶ 칩 ⁷ 의
쇠 ¹ 쿨 ² 방 ³ 에	새 ⁴ 글 ⁵ 럼 ⁶ 서 ⁷ 라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강신자, 여·54)

4-2 둥글당도	살을메난다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놈의첩광	오름에돌은
둥글당도	살을메난다
우리성제	삼성제지난
짚어보자	이여도방에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문착문착	ㄹ루뭇앙
시께헛게	멩질헛게
아기야	울지말라
흔저뻗앙	아기주마
요레랑굴렁	이리오라
폴채로치라	대채로치라
쉬운방에	힘든방에
놀아보자	놀아보자
잘도훈다	잘도훈다
요런날에	요런일흠사
성도얼만	가실소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강미춘, 여·64)

4-3 방에 놀레	방에 놀레
설룬애기덜아	설룬애기덜아
배가고파	울지도말라
배가고파	지은밥은
시루나 많고	떡도 많다
어야뒤야	어야뒤야
나놀레랑	산넘어가라
나놀레랑	물넘어가라
먼뒷사름	듣기 좋게
즈갯뒷사름	보기만 좋게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죇은삭이	좋다 혼들
늦은삭만	못하더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김영열, 여·58)

4-4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가시오름	강당장칩의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에야뒤야
요눔의 방에	혼저나지영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혼저나지영
애기나젓이나	멕여사흔컬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손이 붓물언 터지염구나
기제엇어부난 요놈의방앳귀로
지젠호난 이여도방에허어

(김영월, 여·72)

5. 꿀 베는 노래

5-1 칠팔월 흥애기 어서나 비어보자 하늬복름이 살랑살랑 혼저비영 물려사
주 어기여뒤여 산이로구나
저산천은 푼릿푼릿 젊어나지는구나
저산천은 노릿노릿 단풍이 들엇구나 에헤에 푼릿푼릿 동배나주
제비는 속아도 강남을 가는구나
칠팔월 흥애기소리로구나 어기여뒤여 에헤에 산이로구나에헤에
지픈 글을 못할망정 물속은 가다나온다에헤에 어기여뒤여 사니로구나
제비는 속아도 강남을 가는구나에헤에
저산천은 푼릿푼릿 젊어나지는구나
산아산아 두설산아 어기여뒤여로구나
간다간다 나는간다 요만이를 버칭 갈말가에헤에 이어려뒤여 산이로구나
산넘어간다 물넘어가는구나에헤에

(김영월, 여·58)

6. 해녀노래

6-1 이여싸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여기가	어디라고
고향산천	이별호고
어린조식	떨어놓고
무정한	금전벌라고
여기어서	이걱정저걱정
고향생각	간절호고

濟州島部落誌(Ⅲ)

언제면은	돈을벌영
어린족식	찾아갈고
우리하르방	찾아갈고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차라차라	밀려라당겨라
이네착이	꺼꺼지고
메어보자	이여도싸나
고향산천	그리웁고
이여싸나	이여싸나
앉아생각	누워생각
고향생각	간절일세
언제면은	고향가서
가족일가를	만나보리
이여싸	이여도싸나
이여도싸	이여도싸나

(강대지, 남·64)

6-2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이여싸나
잘잘가는	жат나무배야
술술가는	소나무배야
앞발롤랑	허우치멍
뒷발롤랑	거두치멍
이여싸	이여차나
요네착을	버칠말가
요네착을	심영사민
엇인설움	절로난다
우리어멍	날날적의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가시남기	몽고지에
손에 꿩이	발에 꿩이
지우라고	날낱던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러뒤여	이여뒤여
차라차라	이여싸나
푸른물결	헤치며
요배야	어서가자
허우치멍	가나보자
어여차	어여차나
어기여차	이야뒤야

(김영월, 여·72)

6-3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이여차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어야뒤야
이물에랑	이어싸
이사공아	이어싸
고물에랑	이어싸
고사공아	이어싸
쳐라쳐	이배야점점
쳐라쳐라	어기야뒤야
쳐라쳐	어야뒤야
파랑도에	이여차
도곤쪽에	이여차
이눔잡눔	이여차
우리훑는	이여차
배로구나	이여차
우리어멍	이여차
날날적의	이여차

앞마당의	이여차
모닥불은	이여차
손에꿍이	이여차
짜을짜고	이여차
날낱던가	이여차
어야차	어야뒤야
어야뒤야	이여차
한이구나	이여싸나

(강미춘, 여·64)

Ⅱ. 童謠

1. 遊戲謠

(1) 고무줄놀이할 때

(1)-1 우리는 대한의 아들 딸

나라위해 싸우자

영식이 누나는 제고등학교 제삼학년

(1)-2 하얀 눈위에 구두발자국

바둑이와 같이와 소복소복

할레루야 숨바꼭질 어디 숨었니

외로운 산길에 순이발자국

(1)-3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드래요

샤빠 샤빠 하이샤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빠 샤빠 하이샤빠 천구백팔십삼년도

(2) 줄놀이할 때

(2)-1 올챙이가요 배가 불러서요

앞발놓고 평요 뒷발놓고 평요

(2)-2 할망 들어왔다 두부장사 들어왔다

색시 들어왔다 솔뚜껑 들어왔다

모두다 들어왔다

할망 나가라 두부장사 나가라

색시 나가라 솔뚜껑 나가라

(2)-3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신발벗고 모자벗고 들어오세요

(2)-4 엄마 밥줘

몇 숟갈

한 숟갈

없다

울엄마는 깍쟁이

아빠 돈줘

얼마

십원

그래

울 아빠 멋있어

(2)-5 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인사합니다

가위 바위 보

진 사람 나가주세요

(3) 손놀이할 때

(3)-1 빈대빈대 빈대뽕

가나다라 마사뽕

우리우리 우리뽕

주먹뽕 가위뽕 바닥뽕

(4) 원님놀이할 때

(4)-1 고모네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자기네만 먹드라
우리집에 와봐라 밥 한 술길 안준다

(4)-2 감자에 싹이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세야 감자 감자 세야

2. 語戲謠

(1) 야유할 때

종이 울렸네 호랑이선생 시험지 들고 들어오시네

하기 싫은 시험시간 빵점은 자신있어요

연필굴려 알아맞추고 전닝하다 틀켜 버렸네

하기 싫은 시험시간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김경자. 여·13, 김문희. 여·12, 박경자. 여·12)

고회경. 여·11, 한경미. 여·12, 박경옥. 여·10)

3. 자장가

3-1 자랑자랑	웁이자랑
훈저자라	웁이자랑
은즈동아	옥즈동아
훈저자라	웁이자랑
우리아기	자는소리
유기제물	제운소리
눔의아기	자는소리
환상비체	제운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강신자, 여·54)

3-2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웁이자랑	자랑자랑
저레가는	서동개야
이레오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늑네애기	재와주마
물아래	옥돌ㄴ뚝
우리아기	가마귀
준놀개ㄴ뚝	우리어진이
자랑자랑	자랑자랑
나라에는	충성동아
일가에는	화목동아
동네방상	일똥잔치호을동아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자는소리
유기제물	제운소리
눔의애기	자는소리
환상비체	제운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훈저자라	저녁ㅎ영먹게
자랑자랑	왕이자랑
늑아니믄	무사영ㅎ느나
왕이왕이	자랑자랑
생각ㅎ민	내가
눈물이	절로남저
자장자장	자장자장
왕이왕이	왕이자랑
가마귀	존놀개ㄴ똥
물아래옥돌ㄴ똥	우리애기
울지말라	울지말라
두술적의	아방웁고
왕이왕이	왕이왕이
언제민	늑쇠술나그네
업어그네	벌영살코
이젠	어멍어멍
영행	울지말라
어어	기여기여
어진이여	어진이여
우리할마님죵손	훈저자게해줍서
자랑자랑	왕이자랑

(강미춘, 여·64)

說 話

目 次

- | | |
|---------------|-------------|
| 1. 범질이통 | 5. 점 잘치는 사람 |
| 2. 범천충 | 6. 지성이와 감천이 |
| 3. 강감찬 | 7. 양태장수 |
| 4. 죽었다 살아난 사람 | |

1. 범질이통

* ‘범질이통’은 행원리에 있는데 행원에서는 수집할 수가 없어서 옆 마을에 있는 월정리에 가서 수집했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한낮에 큰 나무 아래에서 혼자 쉬고 계시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신장이 나빠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학생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라며 천천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

징거(證據)로 볼만한 디도(곳도) 아니고, 미신(무슨) 책자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그 전설(傳說)로 들은 말인디. 우리가 어릴때, 조그만 현 때이?

[조사자: 예]

어째서 ‘범질이통’¹⁾이라 이리 했는고 허니까 옛날 범련이라 훈(한) 사름이

1)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경에 있는 못이름.

이리 살았던 모양(모양)이라. 그런데 낸중(나중) '범질이통'이라 된 그 원인이.
에— 이 구좌읍 평대리²⁾엔 현 디가(한 곳)이 이서 이?

[조사자: 예, 이수다.]

옛날은 이제 젊은 사름덜은 모르지만은 에 산되농서(벼농사)와 모밀농서를 많이 지었거든. 그래 어떤 홀어멍(과부) 혼자 산되농서를 지었는데 산되가 좋아.³⁾ 그러니까 이젠 그 임제(임자)가 가서 그 산되를 다 비어(배어) 가지고 아직 무끄지도(뭍지도) 않고 그냥 밭에 넣어놓고 잊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밭임제 생각에도 「이렇게 곡식이 좋으니까 혹 도적이 부틀 게 틀림없다.」

[조사자: 도적이?]

어. 도적이 올 게 틀림없겠구나 해서. 집이 와 가지고 이젠 다시 그 밤이(밤에) 올라가서. 밭에를. 밭에 올라가 가지고 직허노라고(지키노라고) 허니까 아 닌케 아니라, 혼 쇠(牛) 다섯개(다섯마리) 몰안 장정(壯丁) 혼 대여섯 놈이 아, 그 리로 오거든. 아, 여자 혼잣 몸으로 지금 그 도적을 잡을 수도 웃고. 그래 ㅁ 만이(가만히) 생각을 허니까, 「이거 안돼겠다.」고 호미(낫)를 가전(가지고) 갖다가 죽기(자기) 옷 앞섭 [자신의 옷 앞섭을 잡으며].

옛날은 갈배 적삼이라고 현 게 이서. 감 맥연 입는 적삼이 잇는데, 그 적삼 앞을 짹— 허게 찢어 내어 가지고 이만쯤 [손으로 한뼘쯤 찢수 재는 시늉을 하며] 그 도적놈덜도 산되를 무껴야 그 놈을 쇠에 시끼(싹고) 갈겨주게.

[조사자: 맞수다]

허는데, 그 여자는 저만쯤이 몰르게 가 가지고 산되 위에다가 그 험벅(천조각)을 푹푹 부치는 거라. 그놈덜이 이젠 다 무껴 가지고 쇠 다섯에 그냥 짐을 다 시켜노니까 뭐 산되밭은 절단(絶斷)허여.⁴⁾ 아무것도 웃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예편(여자)이 「이거 어딘 놈덜인디 이걸 해 가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근거를 잡아보아야겠다.」고.

그래 쇠 몰양(몰고) 나오는데 그 먼딜로(먼곳으로) 조차단 말이여. 그 밭임제가. 조치고 보니까 아, 그 행원⁵⁾ 지경 지금 아까 말헌 그 '범질이통' 이엔 현 디(곳), 옛날 범련이란 사름이 살았다는 딴 디. 아, 그 집더래(집으로) 가 가

2)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3) 벼농사가 잘 되었다는 말.

4) 여기서는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다'의 뜻.

5)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지고 전부 다 풀어 논단 말이며. 「아, 이딴(여기) 놈덜이구나!」 해서.

그냥 이젠 그 밤이 죽기 집이 가면서 생각을 허니까 이거 요시(요새)에는 젊은 사름덜은 모르지만 옛날은 그 면(面)을 통치허는 ‘풍헌(風憲)’이 있어. 면풍헌(面風憲)이라고. 이 도적도 잡아 꼭 그 나쁜 행동 허는 사름을 심어(잡아)가지고 벌도 주고 이러는 사름이 잇는디, 그 풍헌칩(풍헌의 집)을 들어갓단 말이며.

그래 풍헌이 줌(잠)을 자다가,

“이 밤중이 웬 여자가 왔느냐?”고.

“아, 영 정(이러 저러)해서 왔읍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뭐 표적을 잡은 게 잇느냐?”

니까

“표적은 아무것도 잡은 게 웃고 나 옷 적삼 찢어 가지고 그냥 산덕 위에 놓아 두고 왔을테니 그 놈덜이 무것을 터이니 산덕을 전부 풀면서 보면은 그 옷 자락이 나오면 그 놈덜이 해 간 게 틀림웃일거우다.”

그리 생각허니 그럴듯도 허거든. 그 이가 이풍헌(李風憲)이라고 허는 인디에— 이풍헌이 이젠 일어나서 가솔(家率)을 일러 가지고,

“조반을 지으라.”고.

그 밤중에 이젠 조반을 지어 가지고 먹어서 그 밤중에 이제 몰(馬)로, 그 때는 시(市)에를 가야 뉘는거라. 성안(市)을 이?

옛날 성안은 지금 소또(사또)라고 해서 살았으니까. 제주도를 통치허는 사름이. 거길 가 가지고 시(市)에 간 날이 거의 붉게(밝게) 뉘서.

“이게 웬 사름이냐?”

허니까,

소실(事實)이 약하약하(若何若何)해서 왔읍니다. 도적을 잡앗는디. 이지 처리해 주시오.”

해서. 그 소또가 불러서 그 내막(內莫)을 들어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젠 요새말로 공문(公文)을 써서 행원더래,

“이거 가는 길에 행원에 가서 부치라.”

부치는디,

“행원 오시수라고 허는 사람을 그 행원 신작로까지 전부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써 줄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부치라.”

그래 나오다가 이젠 이 행원을 들렀단 말이여. 들려 가지고 이젠 그 공문을 부치니, 아, 오시수라고 허는 이가 옛날은 뭐꼬. 경민장, 동장, 이장 무신(무슨) 좌수 이런것을 놓고 오시수라고 해서 막을(마을)을 다스리고 했거든.

[조사자: 냇 뿐인게 마썸.]

또 하나 잇는디 뭇인지 이저부런(잊어 버려서) 몰르켜라(모르겠다)

[조사자: 아, 예 뉘수다.]

아, 그 부름을 받아 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낫구나. 아, 무신 일이 잇어서 아, 오시수를 신작로 앞에 대령하라고 했는가.”

그러나 옛날은 범련이라 허민 뉘 벌벌 튀어(떨어) 가지고 다 신작로로 나왔단 말이여. 나와서 이제는 그 이풍현은 평대를 가 가지고 그 여재(女子)를 데리고,

“이만쯤 뉘시민 시(市)에서 왔을거다. 그러니 가 보자.”

그래서 여재가 왔단 말이여. 오란 보니 옛날은 그 집이 잡으래 뎡기는(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수령(司令)이라서 이? 이름을 수령이라고 지으는디 요새 마트민(같은) 순경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덜 혼 뎡허고 뎡(뎡)이 내려와서,

“이 오시수가 어디 잇느냐?”

고 해서.

“여기 누구누구가 요긴 누게고, 요긴 누구가 산다.”고.

“여기 범련이란 사람이 어디 사느냐?”

“아, 그거 요 신작로 우(上) 요기 삽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젠,

“군민을 전부 총동원시기라.”

“무신 일입니까?”

“아, 거기 가민 알게다.”고.

그래서 이젠 총동원시켜 가지고 거기에 갔단 말이여. 가서 이젠 산뉘 무꾼

것을 전부 다 클르면서(풀면서) 보니까 아닌케 아니라 그 여자 적삼 옷자락이 들어 잇단 말이여. 게 그걸 가져다가,

“기냐? 아니냐?(맞느냐? 틀리느냐?)”

대니까 이거야 딱 맞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범련이란 사름덜은 법(法)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이건 도적놈의 굴형(구덩)이니까 안 뉘겠다.”

고 해서 거기서 사름을 못살게 맨들기 위해 가지고 거기 물을 파부럿어. 통을. 그래서 ‘범련이통’이라고 해서. ‘범질이통’ 이라고도 허여. 그런 사름이 이섯고(있었고) 그런 이름이 이서(있어).

‘범질이통’이 범련이란 사름이 살았는데 낸중은 그것이 ‘범질이통’ ‘범질이통’ 불러서.

[조사자: 그 물은 사름덜이 먹어 마썰?]

아, 그 물은 아니 먹지. 그 물은 이제 산촌(山村)에 이시니까(있으니까) 우마(牛馬)들이나 맥여.

[조사자: 아, 예]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이찬희, 남, 87세)

2. 범천충

범천충이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겼던 모냥(모양)이라. 보통사름허고는 어떻게 무신것이(무슨것이) 틀리게 낫던 사름인 모냥이라.

그 사름이 이 행원¹⁾과 한동²⁾ 양 새(사이) ‘더뱅이 물’ 이랜 현 디서(한 곳에 서) 살았덴 현 말을 들었는디 전설(傳說)로는 그 이가 한동 사름이라. 그런 말이 이서.

그 이가 호 번은 어디 서이(서쪽) 무신 동 길(다닐) 일이 잇어서 동겨서 돌아 오다가 보니 날이 저물아 부럿어. 물을 타서 마상(馬上)에 오는데 웬 여자가 앞일 슥 걸거든.

1)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2)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저저 밤이다가 웬 여자가 혼자 걷는고?”

그 여자 뒤를 조치니까(쫓으니까) 물을 탕지만은 못 조차.

[조사자: 그 여자도 물을 타부난 못 조찬 마썸?]

아니여. 범천충이 물을 타고 가는데 그 여자는 앞이 걷는데 아, 물을 물안가민 그 여자는 재기(빨리)가 버리고, 뜨게 허민 뜨게 가꼭³⁾ 이렇게 해서 생전 만날 수가 어서. 만나질 못 허여.

「이상허다.」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오는 것이 한동 지경을 다 당했단 말이여. 당허니까 그 여자가 범천충보고 말하기를,

“이제 너의 집이 이제 곧 화재(火災)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가산기물(家産器物)을 다 내 놓으라.”고.

아, 이렇게 허거든. 아, 그때야 사름이 아닌 줄을 알아서. 아, 집이 간 보니 집이 식구들은 다 잠(잠)을 자고 잇거든.

“아, 일어나라.”고.

“이게 웬 일이냐?”고.

“에— 지금 곧 화재가 난다고 해서 이른다.”고.

“가산기물들을 다 일로 바깥으로 다 내 놓으라.”고.

그걸 다 내놓자 아닌케 아니라 불이 낮단 말이여.

[조사자: 그걸 다 내놓자 마자 마썸?]

응.

[조사자: 어떻허영 나신고 예. 어떻허영 불 나수까?]

[웃으시며] 불이 어떻헨사 나신디. 거기서 불이 나 노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미리서 예고를 해 준거지게. 그러니까 그 보통사름이면 예고를 안 해줄 터인디 이게 특이헌 사름이니까 아마 미리서 말을 해 주엇던게라.

[조사자: 귀신이엇구나. 여자가 예?]

미시거?

[조사자: 게민 여자가 귀신이엇구나 예?]

3) (범천충이) 말을 타고 따라 가면 그 여자도 빨리 가고, (범천충이) 느리게 가면 (그 여자도) 느리게 갔다는 말.

응. 여자가 밤이 오면서 갈리게 된 때에 그 말을 해 주었던게라.

그렇게 했는디, 짓도 그래서 그 범천충이 그 가산기물을 살렸던 말을 듣고 그 후제는 전 우리 욱을 후제라.⁴⁾

한동에다가 어둡으면 불이 나. 계민(그러면) 이디서(여기서) 불이 나민 동리 사름덜이 모여가서 그 불을 끄노랜 허민 또 저쪽으로(저쪽으로) 강(가서) 부터 가지고 아, 그놈의 궤화(怪火)가 나 가지고 그 군민덜이 여간 궤롭지 않았다고.

“이거 큰일났다.”고.

게 밤들어가민 한동 사름덜은 잠을 못 자지.

그래 혼(한) 중(僧)놈이 지나다가

“여기 밤에 불 나지 아니하냐?”니까

“그렇다.”고.

그러니 그 중을 심어(잡아) 가지고

“이것을 예방을 해줄 수 없느냐?”고 하니,

“그렇다.”

고 했단 말이여.

이 한동 지경이 그렇게 생겼다고 허여.

그것은 그런디, 이 한동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름이 옛날은 ‘궤’엔 해서. ‘궤’라. ‘궤변기’엔 영 현말(이런말)이 이서.

“이름을 고쳐야지만 뉘겐다.”

이름을 뭐시라 고쳤느냐 허민 한동이라 해서. 한수한(漢)자 허꼭 동녘동(東)자 해서.

그래 한수한(漢)자가 이는 큰한, 물이 크면은 불을 끈다해서 이 한수한자를 썼어.

그러니까 이 물 동편이라 이름을 고쳐 노면은 그 궤화가 떨어져서 웃단 말이여.

4) 그 후에것은 우리가 자란 뒤다.

우리가 혼 열댓살, 스무남은 적에 계도(그래도) 그 불 거시기 허는 것을 지난 밤은 어디 불났져, 어디 누계 집 불났져 허는 걸 본 일이 이서. 그것도 약 혼 6, 70년전 일이지.

[조사자 : 계난 불난전 집이 불난거구나 예.]

응. 집이 불났주.

[조사자 : 도깨비불이었구나.]

[웃으시며] 췌화 지. 췌화.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이찬희, 남, 87세)

3. 강감찬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찾았을 때 제보자는 마늘을 다듬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혀 얘기를 모른다고 하다가 조사자들이 같이 마늘을 다듬으며 얘기를 청하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며 이야기할 뜻을 비쳤다.

“혹시 훌륭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강감찬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다며 얘기해 주셨다. *

강감찬(姜邯贊)이 인시(얼굴)가 좋게 낫어. 그 얼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댜거든.

흔니(그러니), 대별왕 불러 가지고,

“나 얼굴을 아주 막 콧게 맨들아 달라.”고.

박박 얹어지게 맨들아 놓으니 그 얹은 궁기(구멍)가 더 귀인(貴人)색만 나고 아니 댜거든. 그때 그 소별왕 불렀주. 죽은(작은) 아집을 불러서,

“입도 토라지꼭 눈도 토라지게 다 그렇게 맨들아 달라.”고 하니, 원 그 어디 강(어디 가서) 놓앗자 강감찬의 앞을 보고서는 강감찬의 부모도 원 어디 돌앙 땡길(데리고 다닐) 생각이 웃어. 게 어디 돌랑 가젠 허민(따라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아덜(아들)을 달래그네(달래어서).

훈 번은 김정승첩이(김정승집에서) 결혼식을 헌뎨 허난,

“아버지 나도 가카?(아버지 저도 따라 가도 돼요?)

“아, 나덜(내 아들) 오지 말라. 놀라그네(너는) 나 켜기허곡(고기하고) 떡이영
하영(많이) 받아당 주마. 놀암시라(놀고 있거라) 이?”

경호연 간 이시니,

“아버지 나도 왓수다.”

원 강감찬이 어찌 좋아하던지. 게 강승상(姜丞相) 아덜이엔 허니까 ㄴ튼(같은) 상으로 출령(차려서) 아니 즐거여?

[조사자: 예, 맞수다.]

주니, 먹어 가지고. 밥만 얻어 먹고 강감찬이,

“신랑허곡 훈 번 댁변(答辯)이나 해 보겠읍니다.”

[조사자: 댁변 마썸? 댁변이 뭐이파?]

댁변- 댁변도 몰라? 영 서로 말허는 거-

[조사자: 아! 답변.]

응. 아, 저거 모냥 좋은것이 신랑허곡 댁변헌뎨.

“거 좋다.”고.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좋아허여. 이젠 신랑안티 가서 서로 수작(酬酢)허고,
거 신랑이 모자를 썬 이섯는디 손으로 탁 치명,

“이새까 이거 쓴 거 뭐이나?”고.

[조사자: 강감찬이가?] 응. 쳐보니깐 여이(여우)여.

[조사자: 신랑이?]

응.

“김정승 사위 잘 했소.” [강감찬이 한 말] 그제 그때부터 강감찬이 명예를
얻엇주.

그래 강감찬이 장래 커 가지고 마, 나주목사로 강감찬이 떠났는디, 나주목사
로 떠나버렸는디 산담에 둔갑헌 진대란 놈이 잇는디.

[조사자: 진대? 진대가 뭐이파?]

배염이주.

훈 번은 서울로 가서 둔갑을 퍼 보려는디 강감찬이 허나 진대를 이겨 가지고
서 산담에 잡아 놔 두엇다가 나주목사로 떠났다 허니 어서 틈을 타 가지고 서

울로 내려 갔는디, 거기 김정승 딸(딸) 하나이 혼례(婚禮)를 못해 가지고서 거저 30세가 가잡게(가잡게) 뉘어 가는디 김정승 자꾸 저들양(근심하여).

“아버지, 어찌 그리 근심하십니까?”

“가지 말라. 느(너) 가민 분명 살지 못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큰 대문에다가 내가 방(坊)을 부쳐 가지고서 그 글자 채우는 이가 이시민(있으면) 어떻(어떻게) 안합니다.”

“그래, 아뢰라.”

글을 씌는디(쓰는데) 뭐라고 허는가 하니,

「불식두견은 단소정(斷所頂)이라」

그래 가지고

[조사자 : 무슨 글자 써시고 마썸?]

불식두견이라고 거 두견조(杜鵑鳥)가 있어. 두견조가 그거 다른것도 안 먹고 제냥으로(자기대로) 제 피 빨아 먹엉(빨아 먹으면서) 사는 새라. 두견조가,

[조사자 : 아, 예]

경 말해주.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해서 큰 대문에다가 딱 부치니 사방 거 손님덜이 그 글에 짹힐 수가 있어야지.

[조사자 : 불식두견에 단소정마썸?]

응.

[조사자 : 단소정 혈때 단자는 무슨 단자파]

끊을단(斷)자.

[조사자 : 예. 게민 소자와 정자는 무슨자 씹니까?] 고만셔봐(가만 있어봐). 이쳐 부럿주(잊어 버렸다).

[조사자 : 예-, 뉘수다.]

산담에 잇는 진대란 놈이 갖거든. 그 둔갑헌 배염이. 그 둔갑헌 게니까 인재(人材)나 대맹이(머리) 오죽 좋아실거라?

[조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거 저 글이나 혼 짹 불러 가지고서 김정승 사위로 들라.”고.

“난 키가 썰라서(작아서) 뵈리지(보지) 못하것어. 뭐라고 했느냐?”고.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했다.”

“진대란 놈 저거 글공부 했나?”

이젠 산담에가 ㄹ만이(가만히) 누웠주. 그때가 아마 이태백(李太白) 죽은지가
오랫던 모양이여. 서촉(西蜀)을 가 가지고서 이태백안티 가서, 아마 서촉에도
흔레란 것이 잇을테니 글재를 얻자고. 배염놈이 물엿 가민(물으면) 잘해 주어.
그땐 어땡:

원 멧날 메칠사 갓던지. 서촉을. 서촉을 가 이태백 무덤을 가서 북닥북닥 굶
으니 아, 요새 그 혼령(魂靈)이란 것이 잇어서,

“누가 내 무덤을 파느냐?”

“예. 조선(朝鮮) 산담에 잇는 진대입니다.”

“너 어째서 내 무덤을 오란(와서) 파느냐?”

“선생님안티 글재 혼 재를 얻자고 왔읍니다.”

“뭔재냐?”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현 글자를 짹을 불러 주십사.”

ㄹ만서 보니, 울커니. 요놈잡을 강감찬이 잇으니 불러 주자.

“너 불러 줄터이니 너 구녕(구멍) 잘 막아라.”

“예.”

“미룩비룩은 청대위라 해라.”

공중에 그 날이 굿재허민(굿으려고 하면) 뚱소리개란 놈이 주룩주룩 아니허
여? 이거주. 미룩비룩은 청대위라.

[조사자: 한자(漢字)로 무신 글자라 써신고 예.]

거 아무 글자를 쓰구대구(쓰던지 말던지).

그만 들어 가지고서 이젠 나온란 보니[구멍에서], 또 거길[김정승집] 건너간
보니 사름덜이 잇어.

“뉘라고 하느냐 글자는?”

“불식두견은 단소정이라.”

“거 뉘야, 그까짓것 뉘.”

“미룩비룩은 청대위지.”

이젠 그 이정승도 잇다가,

“내가 사위허갇다.”

김정승도,

“내가 사위허겠다.”

서로 막 부터 가지고서 싸움 발악을 해. 이정승은 아덜(아들)도 여라개고(여
럿 있고), 딸(딸)도 여라개고, 김정승은 그 단지 그 외딸 하나 뿐이여, 나라에
서,

“김정승안티 주라. 이정승은 즈식(자식)이 많으지 않으냐?”고.

“김정승은 그거 아들 목 딸목(아들 몫 딸 몫) 하나 뿐이지 않으냐?”

이젠 김정승이 데리고 가서 잇는 곳을 물으니[거처하는 곳], 날로 말허민(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산덤(山頂)에 잇읍니다.”고.

[조사자 : 산담마썸?]

응. 산덤에.

“산 가운데 살면서 무전무토(無田無土) 하곡 조실부모(早失父母) 하곡 해서 삽
니다.”고.

“그러냐. 경허민(그러면) 산덤에 갈 게 없다. 여기서 살고 가지 말라.”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결혼날은 결혼식 해 가지고서 사는디, 강감찬은 나주
목사로 가서 ㅁ만서 보니 국가가 어지러운 통에 큰일 낫거든. 그저 헐(해야할)
공서(公事)도 어리발 주리발 허멍(대강대강 하면서) 언제민 가마를 타 가지고서
올라가서 결[진대를 말함] 죽여야지.

허는디, 경 정 허멍 혼도(限度)가 당하니 사직(辭職) 놓아 가지고 올라가는
참에 김정승칩에 갔어. 그 김정승은,

“세상세계(世上世界)에 웃는 사위를 했다.”

고 해서 치신(致身)이나 해 보자곤 강감찬일 들어 앉혔어. 요건[사위, 즉 진
대를 말한다.] 벌써 귀신잇는 몸이라.

“아프거라.”고.

머리뺨 짝 수건으로 지고(지끈) 매고 들어누운 참이여. 김정승이 사위안티
가서,

“야! 나주목사가 가다가 널 만나겠다고 허니 나오라.”고.

“아이고 아파서 갈 수 웃읍니다.”

“[목청을 높이며] 거, 어디 누가 부르는디. 거 사위난 죽지 않을 정도만 뒹면

끄서내(끌어내)! ”

호고 호통하니, 나주목사안티 호통을 들으니 분허거든.

“작대기 지프곡 못전저도(못전디어도) 나오라.”고.

[조사자: 김정승이?]

아니. 김정승 사위가. 그냥 박박 털멍(떨면서) 나오니 강감찬이,

“거, 내 눈 앞이서 본색(本色)으로 못 빙긋느냐?”

고 호통하니 이젠 느라이 자빠지거든(기운없이 꼬꾸라지다).

“김정승 사위 잘 했소.”

하니 깜짝 놀라거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나?”

“김정승 사위 잘 하셧다니 내가 올라가는 참에 친심(親心)허자고 왔소.”

[조사자: 친심?]

친심을 몰라? 서로 대하자고 오노라곤 현 말이주.

“이젠 어떻게민 뉘느냐?”

고 하니 김정승의 홀목(손목)을 잡아,

“이제 숯불을 피우라.”고.

숯불 막 엉정허게(새빨강게) 피와노니,

“네 손수 저 불러래 들어라.”

하니,

[조사자: 강감찬이가 마썸?]

응.

슬슬슬슬 기어들언. 김정승 아까본(아까운) 사위 불에 탄 죽게 되엇어. 거 막 사라지니 절상 갖디다 놓고, 요새 거 병원의 침대 닳은거 그거 숯불 우에 앓디다(가져다) 놓앙,

“김정승 딸 이 우터레(위에) 눕히라.”고.

벌써 새끼 배연 배염 새끼가 픽픽 거 더운기 들어가니 나오거든.

“어, 김정승 웨손(外孫) 많이 봤소.”

[제보자, 청중: 웃음]

그래 가지고 강감찬 아니민 국가가 망헐 때랏주. 그거 새끼깨와 똥(똥서) 그 거 몬(모두) 수(術) 쓸 때민 나라 망헐거주.

[조사자: 계민 강감찬 덕분에 나라 구했다 예?],
그렇주.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강경석, 남, 95세)

4. 죽었다 살아난 사람

[조사자: 할아버지. 죽었당이네 살아난 사람 이시민(있으면) ㄴ라줍서(이야기 해 주 십시오).]

죽었다 산 사람은 정동식이라고 잊지.

[조사자: 정동식?]

응.

정동식이라고 허는 사람이 이신디 죽어 가지고 저승을 가니,

“너 ㄹ(罪)에 범(犯)해시니까. ㄹ(우)로 ㄹ생(還生) 시겨(시켜서) 내 보내라.”

[조사자: 소로?]

응. 소로.

ㄹ로 ㄹ생 시겨 내 보내니 이놈 커 가지고서 하건(이러저러한) 발갈쟁(발을 갈 려고) 허곡 짐 시끄저 허민 꽤 ㄹ로와.

에, 이놈 뭐 ㄹ는 사람허곡 틀리난 몸에도 털 돈고 뽕 돈고 다 그렇게 ㄹ노 니 원 ㄹ롭거든.

“에, 이놈 또 죽어 부러야지 안 ㄹ겟다.”

사람 가 가민(가까이 가면) 범접(犯接)을 못허게 ㄹ후려 불곡(뽕로 받아 버리 고), 발갈쟁 허민 하건(많은) 연장 다 부수아 불곡 부리질 못허여.

“에, 못쓰겟다.”고.

“모관¹⁾에 가 팔아 부러야겟다.”

모관에 가 팔아부니,

“이놈 그래도 ㄹ를 다 못 다스려시니 배염(뺨) 몸으로 ㄹ생(還生) 시겨 내 보 내라.”

1) 이조 500년 동안 제주도를 삼현분립, 통치할 때 제주목.

[조사자 : 배염으로?]

응.

배염으로 환성 시켜 내 보내니 이 삼 사월에는 좋아. 딱땃헌(따뜻한) 새남석에
기여 땡기니(다니니) 입동(立冬) 되면 10월 저슬(겨울) 들민 추운기가 나서 그
궁기(구멍) 훑아서(찾아서) 들어 땡기기가 꽤 심난(甚難) 허거든.

“에이, 어떻게 술폐를 부려 가지고 또 죽게 해야지 안 뉘겟다.”고.

서울 대감댁 정한강네 집 이런 (문지방을 두드리며) 이문돌 우에다가 탁 걸러
젖다가 누가 가가진 물젠 허꼭 대구리(머리) 들려가민 다 놀래서 그냥 도망
가서.

[조사자 : 이문우에 마썸?]

응. 저런 돌 우에.

훈 놔온 잔뜩 먹은 놈이 잇는디 작대기 지프꼭 가다가 보니 이놈의 것이 대
구리 들려 가지고서 허거든.

“아, 이전 뭐이냐?”고.

그냥 잡아 쫓겨부니(갈겨 버리니) 죽었어. [제보자, 청중 : 웃음]

[조사자 : 술먹은 사름이었구나 예?]

응. 죽언 저승을 가니,

“이젠 이놈 췌를 다 다스렸다.”고.

“에— 서울 아무가(家)의 집으로 가서 생남(生男) 시켜 준다.”고.

이젠 사름으로 화(化)해 나올거 아니여?

[조사자 : 예.]

사름으로 나오라서.

흐니, 그 지(자기) 죽은 날도 알고, 지 묻은 디도(곳도) 알고 다 알거든 이?

[조사자에게 확인하듯 하며]

내이(나이)가 훈 이십세 뉘지. 내이(내가) 살아난 자췌(자취)가 그대로 잇는
가? 웃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훑안(찾아서) 오란 보니 지 무덤, 그 산도 그냥
잇고, 즈기(자기) 살아난 집이 그대로 잇어.

와 가지고 내가 이젠 죽은 줄 알고 잇는디, 정동식이 가고 보니 사름덜(사람
들)이 머리에 흰발(흰 머리털)이 희뜩희뜩 허니 나 잇어.

[조사자 : 흰머리가 예.]

응.

동생 멧허고 그디 안진것이(앉은것이) 지 짐승이엇든 모양이라.

[조사자 : 웃음]

그래 저승 하루 해(하루 해), 저 침(참) 이승 훈 해가 저승 하루 헨 말이 온(옴은) 말이라. 글로(그렇게) 말허민. 그럭허곡(그리고) 하필 지 죽은 제삿날이 엇어.

아잔(앉아서). 이 말 저 말 해서 아무 논밧은 어찌고 허는디 밧 하루 재우(재우) 풀아(팔아) 먹어 부러거든(버러거든).

[조사자 : 하루만 풀아 먹언 예.]

응. 하루만 풀아먹언 그대로 해산(解散) 허연 그대로 잇거든. 멧해야(멧년이) 땃는지 모르지만은. 안장 놀다가,

“에— 여기 놀암시민 제사나 보겏다.”고.

제사보러 가니,

“저눔덜(저눔들) 오늘 나 나시(내 몫) 허는 제사로구나.”

제사먹영 제물(祭物)이영 많이 가져당 주니 먹고 잇더니 정동식이 허는 말이,

“오늘 저녁 하루는 제사가 나의 제사라.”고.

저 벌쩍 뿔거 아니여?

[조사자 : 맞수다.]

“아, 이거 어떻게 현(어찌 된) 말이냐?”

이거 일천상(여러가지) 말을 다 마르니(말하니) 제사 먹영 간 그 일가(一家)들을 다 문중(門中)을 모였어. 문중을 모여 가지고서, 형제간 부를순 웃고. 다 조상족장(祖上族長)이여.

[조사자 : 조상족장?]

응.

모두 그저 하르방광(할아버지와) 아저씨 베끼는(밖에는) 안 뒤후주게. 그저 연하(年下)가 뒤후노난.

[조사자 : 아! 예]

불과 훈 이십세에 지나지 못했는디.

“인사허지 말라.”고.

“혼(魂)은 내가 여기 혼이지만은 때(時)는 여기 때가 아니다.”고.

“내가 살아난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왔다.”고.

“내가 여기 살래(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경 허연(그렇게 해서) 뒷날은 그냥 떠나서 서울로 그냥 올라가 부렸주. 그러니 그 옛날 정동식이 하나 그 이가 죽언 침 멧번 도환생(道還生)을 해낫주. 그 후젠 죽엇당 살아난 사름 말이 으서(없어).

[조사자:게민 정동식이엔 현 사름은 어디 살아난 사름이꽈?]

서울.

[조사자:서울사람. 게민 그 말은 어디서 들읍디가?]

고만셔바(가만히 있어봐). 응, 그 말은 정이서 들엇는디 이쳐부러서.

[조사자:예-]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월정리, 강경석, 남, 95세)

5. 점(占) 잘 치는 사람

*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담 잘 하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 왔다고 인사를 드리자 큰 소리로 웃으시며 마루로 올라 오라고 하셨다.

더운 날씨인지라 얇은 겹옷 한 벌만 걸치고 계셨는데 손님에게 멋적은듯이 자꾸 옷을 만지작거리며 담배불을 붙였다.

시골집치고는 넓은 집이었는데 마루에서 내다보니 시골 냄새가 물씬 거렸다. 조사자가 녹음기를 꺼내자 녹음에 익숙한듯 잠시 쳐다 보다가 준비가 다 되니 얘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

옛날에 숙종대왕(肅宗大王)이라 허는 거시기가 이섯는디 해동(朝鮮)에 어떤 사름이 숙종대왕허고 ㄹ튼(같은) 동년 동월 동일생(同年 同月 同日生)이라고 허거든. 동일 동시 ㄹ지(까지) 이제 ㄹ튼 거시기라고.

[조사자:시(時) 꺼정(까지) ㄹ탄 마썸?]

응.

점(占)을 잘 허는 이제 점쟁이가 잇다고 허니까 그 사름 이젠 숙종대왕허고

동갑이라도 절인뱃괴(밖에) 안 돼서. 절인 노릇뱃괴 못허거든. 절인 노릇배괴 못허곡 허연,

“이상허다. 우리 어멍, 아방은 나허고 숙종대왕이 동갑이라고 허고, 막을(마을) 사름도 다 경(그렇게) 쏜는디(말하는데), 숙종대왕은 정(저렇게) 대왕 노릇을 해서 이제 거시길 허고, 나는 이렇게 빌어 먹으민 게민(그러면) 팔자가 어찌 동갑에 경 차이가 있느냐?”

이래서 점을 잘 허는 점쟁이가 잇다고 허니까,

“훈 번 점을 가서 쳐 보자.”고.

점을 간 치니까,

“점채를 내라.”고 허거든.

점채를 얼마나 내신지는 모르지만은. 점채를 내고 점을 천 허니까니,

“너는 이제 절뽕이뱃괴 안 돼겟다.”

영허연 허니(이렇게 하니),

“우리나라 숙종대왕허고 내가 동갑입니다.”고.

“동갑이라 마썸. ㄹ튼 동월 동일 동시생인디 어찌 그럴 수가 잇읍니까?”

영허니, 이제 그 점쟁인 그걸, 이 말이 온 말인지 그른 말인지 모르지만은.

“숙종대왕은 독(닭)이 울때에 즉시(子時) 되민 저게 우는겐디(우는 것인데) 쳇(쳇) 고개를 둘러서 ‘꼭꼭’ 해서 날개(날개)를 ‘닥닥’치고 우니,

[고개를 쳐들며 닭이 머리를 들어 우는 모양을 하며]

그는 임금 노릇을 해서 대왕 노릇을 허고, 너는 ㄹ튼 시(時)에 낫다고 헐지라도 독이 막 소리 죽여서 ‘꼭-’해서

[고개를 내밀었다 숙이며]

야개(고개) 숙여네 막 녹아가는(나즈막해가는) 소리, 게니까 넌 문전절인(門前乞人) 뱃괴 안 돼겟다.”고.

경 허여난 점쟁이가 잇다고 허여.

[조사자: 예- 재미진 이야기우다 예?]

(1985年 8月 16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6. 지성(至誠)이와 감천(感天)이

요새 보통히는 말이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호주마는(하지만) 아무라도 경호주(그렇게 한다). 성의(誠意)를 가지면은 하늘도 감동(感動)을 현다고.

훈디(그런데) 그 지성이엔 현 것도 사름이고, 감천이엔 현 것도 사름이라. 지성이엔 현 것은 아자 두서 아짐만 호고 아자그네 조름으로 뻗긴 걸지 못허곡,¹⁾ 감천이엔 현 건 이젠 봉사(奉事)란 말이어. 봉사라서 어둡언 바래지 못허곡.²⁾

아! 요것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벗을 헐 걸로 해 낫단 말이어.

훈디, 자 눈 어둡언 앞 바래지 못해서 땡기지 못허는 놈허고,³⁾ 또 아장 어디 일어상 걸지 못허는 놈이⁴⁾ 둘이 만나노니 어디 살 수가 잇느냐 말이어. 뭐 살 수가 웃엇는디(없엇는데),

“자 이제 어쩔꼬?”

해서 이놈덜 이제 꿔를 내기를 어떻 해신고 허니까, 미녕(무명·木棉布)을 이제 혼 필 바파서(바꾸어서) 미녕을 몸뚱이에 감아서 돌돌돌 호곡, 지성이 호는 놈이 따(地)으로만 아자(앉아서) 문직으니까(움직이니까). 그렇게 땡거라. 서로 이제 몸뚱일 무꺼놔서(묶어 놓다). 아자서 영 문직젠(움직이려고) 걸어가니 이제 동생은 그 조름(꽁무니대)에만 조칠거(쫓을거) 아니라게.

[조사자: 예. 맞수다.]

무견(묶어서) 이제 줄 메어 놓은 거니까 제.

경호멍(그렇게 하면서) 가단 보니 어떻 이제 지넌 살 수 웃고 어떤 소냥이 호나 잇거든. 소냥이 호나 이시니까,

“에이, 씨발놈의거, 요기서(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죽어야 땡겟다. 굶어 어

1) 지성이라고 한 사람은 앉은뱅이라서 앉음밖에 못하고 앉아서도 꽁무니로밖에 걸지 못하고.

2) 봉사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3) 눈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서 다니지 못하는 놈하고.

4) 앉아서 어디 일어서서 걸지 못하는 놈이.

다 강(가서) 굶을 수도 웃곡.”

행(해서) 이젠 감천이보고,

“미녕을 이제 지성이가 미녕을 이제 클러내라(끌러내라).”고.

몸뚱이 감은 걸 클러내라고 해서 클러낸 말이어. 클러서 주니까 아, 그 지성이 놈이 클러 미녕을 갖다 그 소낭(소나무) 가지더래 가 자꾸 매젠 허여 가니까 (빨려고 하니까) 하여간 걸어전에 이젠 그 석(끈)을 심게(잡게) 뒤텔단 말이라. 손 내밀앙(내밀어서) 심언,

“자, 요기서 이젠 우리가 둘이 다 죽자.”

허연 이제 눈 어둡은 사름은 비래지(보지) 못허곡 뒬 허난게. 걸진 못해도 지성인 눈으로 비래도 말 서로 곤는(말하는) 거난게. 아맹아맹(이러저러) 흐자고 허영 흐난에 홀 거(할 것) 아니라게. 흐연,

“죽어야 뒬겐다.”고.

영해서(이렇게 해서) 이젠 서로 목을 메어서 둘이 다 ㄴ찌(같이) 목 메어서 죽을걸로 허연 허더니만 어떤 낭밭(나무밭) 가운데로(가운데로) 백발 노인이 나오면서 백발 노인이 와서는,

“너 이놈덜! 허는게 뭐이나 ”

주저주저(머뭇머뭇) 해서 이제 허니까,

“너인 어찌해서 이렇게 만났느냐?”

“아맹아맹 해서 땡기단 이제 질에서 만나서 흐는디,⁵⁾ 나는 안자두서 뱃괴는 (앉아서 밖에는) 이제 걸지 못허곡, 이 사름은 이제 눈 어둡어서 비래지 못허곡 영허니, 나는 비래지는 사름으로 이젠 죽을 걸로 해서 이젠 뱃을 해서 이 사름을 ㄴ찌 동행(同行) 허는 길입니다.”

“응. 그거 잘했다.”고.

“게민 너는 이걸 클러봐라. 클러노면은 내가 사름을 보내서 이제 죽엇던 살렘던 헐테니까 클러노라.”

흐니 클러뵈(끌러 놓아서) 아자시난(앉아 있으니) 아쟈더니 흐 사름이 나온 후 제는(후에는),

“너네가 여기서 죽을라고 했느냐?”

이렇게 흐니,

5) 이러저러 해서 다니다가 이제 길에서 만나서 하는데.

“예. 죽을라고 했습니다.”

“죽긴 왜 죽느냐. 너네가 그만헌(그만한) 노력을 허곡 빙래지 못하는 사름은 빙래는 사름 조름에 조치곡, 빙래는 사름은 발로 서서 걷지 못해서 아자두서 몬직몬직 허는디 서로 거시기가 된거 아니냐. 서로 배필(配匹)이 된거 아니냐.” 하니,

“죽진 안헐거우다. 죽진 안헐전디 내 나 곧는대로(말하는대로) 해서 너네가 꼭 맞으민 사는게고 나 곧는대로 해서 맞지 않으민 너넨 다 죽긴 죽어야 된다.”

이래서 이젠,

“이제 막무가내 아닙니다.” 해서.

“좋습니다. 허겟습니다.” 해서.

“예. 내가 여기 이제 가면은 사름을 보낼테니까 사름허곡 물자를 보낼 것이니까 그 물자는 뭐인고 하니 앓앙(가지고) 오는 사름덜이 앓앙 올거니까 그 사름덜이 흐뎡(조금) 너네 하루(하루)ㄱ튼 시험을 봐서 예- 나 곧는대로 뉘민 흐고, 안뉘면은 너넨 죽는 것이다.”

하니 이젠,

“아! 경 허겟습니다.”고.

허연 돌아간 오는 건(것을) 보니까 항망데기

[조사자: 어떤거 마썸?]

항망데기.

[조사자: 항망데기? 항아리 마썸?]

응. 항아리.

“이것에 흰 ㄱ루(가루)를 담아서 오란 너네손에 ㄱ루이 부떠시민(붙어 있으면) 죽게 뉘고, 아니 부떠시민 살 것이다. 그 사름덜은 손에 ㄱ루이 안 부뜨다. 아니 부뜨 게 그 사름덜 손에 ㄱ루이 부뜨고, 너네 손에 ㄱ루이 안 부뜨민 너네는 살 것이다.” 하니

“아까 그대로 허겟습니다. 무관(無關) 아닙니다.” 허연.

하여튼지 사름손에 뭐 들렁(들어서) 왓거든. 들렁완. 앓앙온 거 보니 춤 거시기 현 사름덜이 ㄱ득(가득) 망데기(항아리)에 ㄱ루이 이서.

그 망데기 영 부리 잇는거 아니라게.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이디(여기) 손을 질러서(집어 넣어서) ㄹ루를 문직아서(만져서) 손에 ㄹ루가 부땡(붙어) 나오민, 부뜨민 죽는 것이고 부뜨지 안허민(않으면) 사는 것이다.”

영 허는디, 아! ㄹ루가 손 질러그네 그 ㄹ루가 안 부뜰 수가 이서? ㄹ룬(가루는) 자꾸 부땡 나오거든. 그 사름덜은 이제 ㄹ루 안 부땡 나오거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허니, 그것은 사름이 아니고 신인(神人)이라 말이여. 조화(造化)를 부쩌서(붙여서) 허는거라 말이여.

허니, 만날 멧 번 이제 거시길 해도 자꾸 ㄹ를 부뜨니 저것들 확실히 헐거라 말이여.

경허연 영감이 나왕(나와서),

“어떻게 땃느냐?” 허니

“ㄹ를가 부뜨긴 부땡습니다마는(붙읍니다마는) 해도(그래도) 죽진 안 허겟읍니다. 죽이진 못 허겟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여.

“아! 경허냐(그러냐).”고.

“경허민 땃다.”고.

경해서 이젠 그 시험받아 불려고 해서 경헌거주게. 이젠 클러뵈단 말이여.

똥풀어서(모두 풀어서),

“너네 이젠 이만허면은 다리 전 놈도 다리 웃는 놈도 발 돌안 걸음 헐 것이고, 눈 봉서도 눈 터그네(떠서) 걸음 헐 것이다. 너냥으로(너대로) 내려서 걸음 헐 것이다. 허니 너넨 기특허다.”

경해서 전부 풀러 노니까 살게 땃노라고 해서 이놈덜도 거시기 헐 나올거 아니라? 나오는디 혼 멧 번 이제 가멍(가면서) 보니까 내(川)가, 조랑내가 줄줄 허게 느리는(내리는) 내(川)가 이섯는디(있었는데) 막앙(막아서) 건너질 못허게 땤엇어. 그 내가 막앙 건너질 못허게 땤는디,

“하! 이걸 이 넬(내를) 어떻허영 넘으코!(어떻게 해서 건너리)”

이젠 한탄을 허다가 보니 물이 느려 가는디(내려 가는데) 뭇 금빛 님은 게 번 짝번 짝 허니 그 놈을 봉간보니(주워보니) 아녀지 아녀서(아닌게 아니라) 금인가 무신(무슨) 땃을 봉가뵈단 말이여. 봉가내영 허니 이젠 그 감천이가.

“야! 이제 우리 살게 됐다 ”고.

그 거시질 둘이 약속허영 우린 살게 됐었다고 이렇게 해노니까 아, 이제 그 지성이란 놈이,

“자, 요걸 감천이가 요걸 봉가시니(주웠으니) 내가 요걸 빼앗을 연구(研究) 해 보카?(연구를 해 볼까) 어떻 해 보카(어떻게 해 볼까)?”

호연 똥(다른) 생각을 허엇단 말이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데껴불자(버리자).”고.

“데껴부리지 이걸 봉가그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데껴불자.”고 하니,

“아, 난 데끼지(버리지) 아니허겄다.” 하니,

“아니라.”고.

“이건 봉글제(주울제) 아니다.”고.

“던져불자.”고.

게서(그래서) 그놈을 다시 이제 봐난(놓엿단), 그 봉가난 더레(주웠던 곳으로) 앳단 드리쳐 부러트단 말이어.⁶⁾ 드리치니까 아, 그 지성이란 놈이,

“에이, 이거 내부는(내버리는) 거니까 내가 봉가내야겄다.”고.

영해서 그걸 들러아산.⁷⁾ 들러아산 허니 이제 감천이도 그냥 거기서 내분 걸로 헐 이제 봉가 아산 허니까니,

“너는 봉가 앳고(주워 갖고), 나는 봉근 것을 내불게 하시니까니 아, 우리가 이제 벗힐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해노니.

“아! 벗 못허민 말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민 너도 이제 걸음 발 호고(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나도 이제 걸음발 하니깐 뭐 관계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니,

“아, 이제 경 흘 수 웃다.”고.

아, 경 허엇는디(그렇게 하엿는데) 얼마 안 가매 다시 노인이 나오는디,

“너 이놈덜!”

6) 가져다가 그 곳에 들이밀어 버리다.

7) 이렇게 해서 그걸 들어 안고는.

아, 영해서 호령해서 거시기 하니,

“너네덜 현 일이 뭐이냐!”

“아명아명 했습니다.”

“꼭 바른대로 일러라.”

하니, 제가 현데로 ㄴ를거(말하다) 아니라?

[조사자: 맞수다게.]

하라 하니까,

“지성이엔 현 놈이 순전히 나쁜 놈이다. ㄴ찌(같이) 벗허영 땡기곡(다니고) ㄴ찌 살아난 놈이 그런 이제 거시기만 이시난 널 ㄴ튼 놈은 죽어야 뉘다.”고. 그래서 이젠 못살게 굴어 부렀다고 허여.

[조사자: 아, 예-]

거니(그러니), 요새 거 조금허민 「지성이민 감천이다」고 해서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님도 이젠 감동한다고 이렇게 하니 거, 지성이나 감천이나 거 사름이라 난 거라.”⁸⁾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7. 양태장수

어떤 장님 하니 이신디(있는데) 불량현 짓을 해서. 불량현 짓을.

아, 혼 놈이 이제 여자 조들름곡(귀찮게 굴고) 허다가 뉘 장사현다고 해서 이젠 뉘 양탄(갓양태)가 뉘 풀래(팔러) 간다고 해서. 양태장사 현다고 해서. 양태장사를.

아, 그걸 문딱(모두) 그 여자안티 할러부렀단 말이여.¹⁾ 할러부런 뉘 돌아오젠 허난 뉘 돈 혼푼이 이선(있어서) 돌아와질꺼라. 그디서(그곳에서) 이제 어디강(가서) 굶어 죽게 뉘 낫거든. 굶어 죽게 뉘어서.

8) 지성이나 감천이나 본래는 사람이었다.

1) 여자안테 흘려서 빼앗겨 버리다.

허니, 하! 생각허니 어이가 웃거든. 어이가 어시니(없으니) 이젠 내 본전(本錢)은 뭐이냐고 훌꺼 마트면(할 것 같으면) 장사 현 본전은 아무것도 하나토 훈 것이 웃고 집일 돌아가지 못허게 뉘니 고약허다고.

허니,

“에이, 이놈의 이제 여잘 간 거시기²⁾ 해야 뉘겟다.”고.

“너 이제 본전이나 날 뉘와(돌려) 달라.”고.

“나 이제 배로 하나(가득) 양태 시꺼(실고) 온 것도 다 판나부난(파손되어 버리나, 적자나니) 집이(집에) 돌아가지 못허게 뉘었니까니 차빌 당해주든지 날 맥영 재와 주든지 허라.”³⁾고 허니,

“게전 경 허라(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내 본전 뉘기(벗기)기⁴⁾ 어렵지 안하.”고 해서 옹게로 춤 경허니, 경허니 아, 이놈이 이젠 더 해 볼 말이 웃엇거든.

뭐 이젠 맥여 달라, 재와 달라 헐 수도 웃고(없고) 뭐 더 해 볼 말이 웃는다, 허니 뭐 이 사름도 거시기 현 사름이라.

“에이, 빌어먹을. 방이나 하나 써부쳐 뉘(두고) 가자.”고.

그래서 방을 써 부치는데 그 옹게로 그 여인 형체(形體)를 이제 말해서 ‘원견(遠見)허니 사마목(死馬目)이요, 근시(近視)허니 파두창(破痘腸)이라.’

‘멀리 보니까 죽은 물(馬) 눈 마트고(갈고), 가까이 보니까 큰 허물 채 것(뉘 것) 마트다.”고.

이것이 일로써(이것으로 해서) 나 이제 거시기라고 해서 방 써 부쳐 뉘 그냥 돌아 오더라 허여.

[조사자: 아! 예]

(1985年 8月 18日, 북군 구좌읍 한동리, 김근호, 남, 82세)

2)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때 무의미하게 쓰이는 허사(虛詞).

3) 나를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하라.

4) 여기서 ‘벗기다’는 ‘본전을 도로 찾다’의 뜻.

信 仰

目	次
I. 概 觀	IV. 巫俗信仰
II. 公認宗教	V. 個人信仰
III. 部落信仰	

I. 概 觀

제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40여 분 달리면 만장굴로 들어가는 길목이 보인다. 다시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3킬로미터쯤 가면 모래밭 위에 앉아 있는 연대봉이 있다. 이 산에 올라 바다쪽을 향하로 바로 밑으로 내려다보면 웅기중기 모여사는 마을이 하나 있다.

호수 350戶이고 人口 1천 7백여 명이 한데 어우러 모듬살이를 하고 있는 이 마을은 처음에는 어등포(魚燈浦), 또는 어등리(魚燈里)라 불리다가 그 어감이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하여 오늘날의 행원(杏源)으로 바뀌었다.

이 마을은 특히 個人이 갖고 있는 경지면적이 적으며 모래밭이 많고 빌레가 많아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목동조직이 잘되어 목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이러한 험한 밭과 바다를 일구며 살아야 했던 이 마을 사람들은 토속적인 민간신앙에 깊게 뿌리박고 있으며 다른 공인종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Ⅱ. 公認宗教

현재 행원리는 公認宗教로서 장로회 1개가 있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수호해 주거나 관장하는 神들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그 神들의 상주처인 당(堂)에 대한 믿음이 매우 깊으며 다른 마을 堂보다도 그 神의 靈驗이 세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 공인종교에는 아직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을 장로회에 다니는 가구수가 5가구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基督教

- 1) 名稱 : 대한 예수교 장로회
- 2) 宗派 : 예수교 장로회로서 통합측에 속한다.
- 3) 沿革 : 1950년 11월 25일 김녕리에서 분립하였다. 처음에는 장군학집사 개인집에서 3여 년간 모여 오다가 1953년 3월 15일 행원리 615번지에 교회를 지어 옮겼다.
- 4) 教會施設 : 1975년 행원 610번지에 대지 88평 가옥 2동을 건축하였고, 운영은 자체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인의 헌금과 중·고등부학생회의 보조를 얻고 있다.
- 5) 信徒 : 유능한 지도자가 없고 또 지도자들이 육지부에서 내려와 잠깐 있다가 돌아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녀신자 15명(5가구)이며 국민학생 25명, 중·고등학생 30여 명 정도 뿐이다.
- 6) 事業 :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사업은 벌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다면 침체된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전도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선도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며 학생들을 통해서 좀더 깨끗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Ⅲ. 部落信仰

- 1) 祭名 : 포제라고 하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라 하여 天祭, 天神祭라

고도 한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제를 지냈다 하여 동포제 갯포제라 하였다.

2) 神祭：天神，醮神，海神 3神位이다.

天神은 마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神이고, 醮神은 農作物을 관장하는 神이며, 海神은 바다를 관장하는 神이다.

3) 祭日：每年 陰曆 정월 丁日과 亥日 중 하루를 택하여 子時에 祭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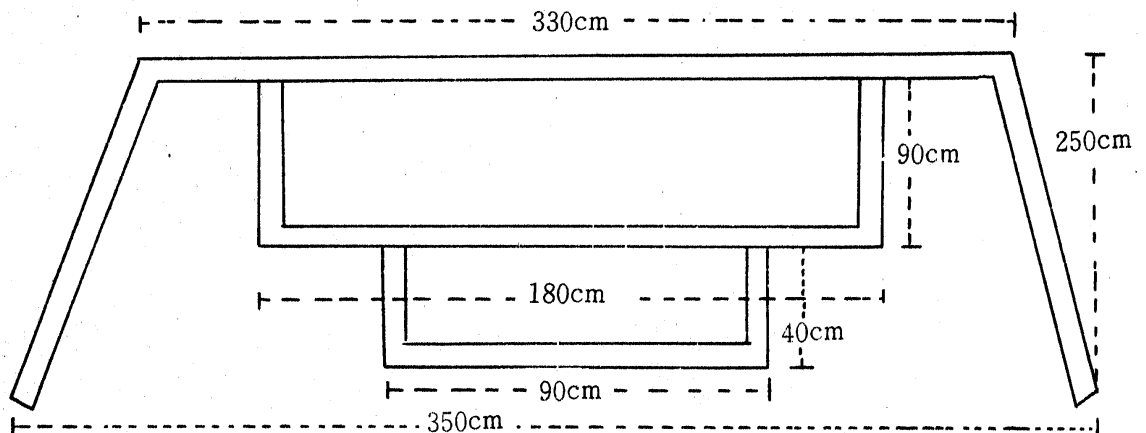
4) 祭場：

① 명칭：포제단

② 위치：원래는 산쪽에 있었으나 해신제와 포제를 겸하여 지내게 되면서부터 바닷가 근처로 옮겼다고 한다.

③ 형태：다음 그림 참조

〈그림1-1〉 醮祭壇形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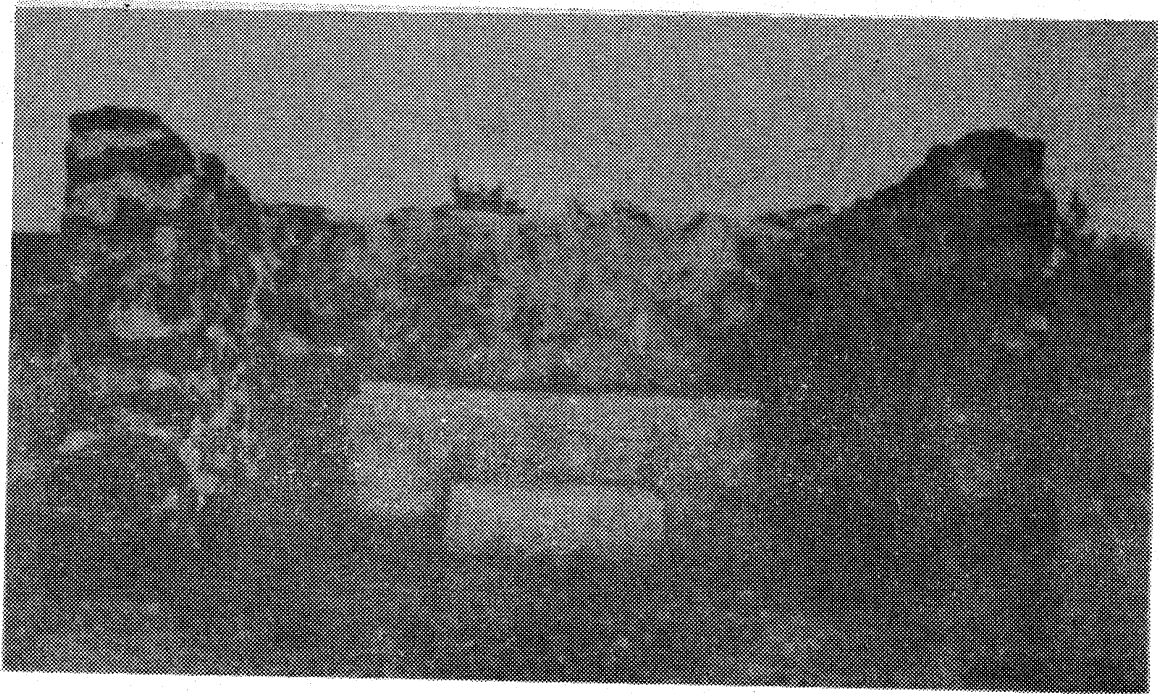
5) 祭儀管理

① 회소집：음력 12월 20일쯤 마을회의에서 제관 및 祭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다.

② 경비모금：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으며 요즘은 마을 공동자금 즉 양식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보관：모든 祭儀에 필요한 축문, 제복, 제물, 식기 등은 이장집에 보관한다.

6) 祭官：제관은 원래 12人이었는데, 요즘은 8祭官으로 줄여 行祭하고 있다.



포 젓 단

① 자격 : 그 마을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50대를 전후한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초헌관은 나이가 70세쯤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집안이 넉넉하여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뽑는다.

② 선출 : 마을 회의에서 선출하며 동네마다 골고루 선출한다. 祭官은 매년 바뀌며 유능하면 연임할 수도 있다.

③ 祭官의 종류

初獻官 : 첫째 헌관

亞獻官 : 둘째 헌관

終獻官 : 막내 헌관

執禮 : 禮를 주장하는 사람(사회자)

大祝 : 祝文을 읽고 祭를 집서함

謁者 : 行祭할 때 獻官을 인도하는 사람

贊者 : 執禮가 부르는 홀기에 보조역할로 「興」을 부르는 사람

典祀官 : 祭物の 준비, 陳設 등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④ 立祭 : 제관이 결정되면 포제청을 결정하여 祭日前 5일동안 제관들만

합숙을 하게 된다. 포제청은 祭壇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을 고르고 여자들의 출입을 금한다.

음식에 있어서도 不淨한 음식,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은 먹지 않으며 제관이 不淨하면 제를 연기하거나 제관을 새로 뽑는다. 그리고 제관들은 3일동안 상물에 깨끗하게 몸을 씻으며 마을에서 누가 해산하거나 초상이 나면 祭는 연기된다.

옛날 김 채호씨가 초헌이였을 때 추운 물에 목욕하고 나오다가 돌에 다쳐 피를 보였는데 모른 채 묻어두고 제를 지냈다가 나중에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다 한다. 그리고 강원택(85세)씨는 제관 심부름꾼인 謁者를 시켰더니 일부러 피를 보여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후에 3년을 병으로 고생하였다 한다.

7) 祭服: 祭官의 祭服은 “과지”라고 하여 왜정시대부터 입었다고 하며, 색깔은 검정색 천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모자는 유건을 쓰고 신발은 보통 신발을 신는다.

8) 祭物

① 메는 稻, 梁, 黍, 稷, 4가지를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쌀메 두 그릇, 좁쌀메 두 그릇을 올린다.

② 犧牲: 돼지 1마리

③ 幣帛: 시라묵, 백지

④ 果類: 五果를 쓴다. 대추, 꽃감, 밤, 유자, 배 등

⑤ 祭酒: 甘酒(醴酒)를 使用한다.

⑥ 脯: 포류, 건어, 명태

⑦ 菁芹: 미나리채, 무우채, 산나물

9) 行祭: 제사와 비슷하며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笏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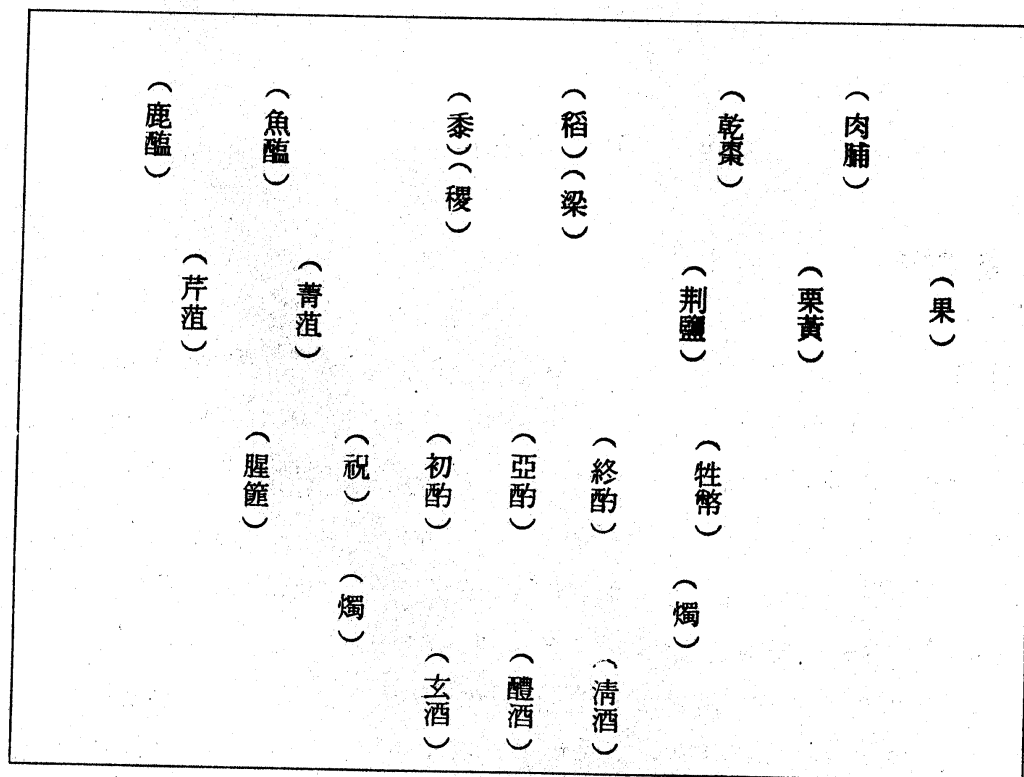
祭 順

祝及諸執事 入就拜位 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因詣 盥洗位 盥手 各就位
謁者引 三獻官 入就拜位 皆四拜 鞠躬拜 興平身 謁者進獻官之左 白有司 謹具請行事 謁者引 初獻官詣 盥洗位 盥手 因詣 神位前跪 三上香 獻幣 小退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樽所 西向位 舉匱 洗酌 酌

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獻祝 小退俯伏 讀祝 興平身 引降復位 謁者引 亞
 獻官詣 因詣 盥洗位 盥手 因詣 樽所 西向立 洗酌 酌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小
 退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謁者引 終獻官詣 因詣 盥洗位 盥手 因詣 樽所 西
 向立 洗酌 酌酒 因詣 神位前跪 獻酌 小退俯伏 興平身 因降復位 三獻官 皆
 四拜 鞠躬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神位前跪 執事者 以酌 授獻官
 獻官 受酌 飲卒酌 撤邊筥 興平身 因降復位 三獻官 及諸位者 皆四拜 鞠躬
 拜 興平身 謁者引 初獻官詣 因詣 望座位 焚祇祝 禮畢 初獻官以下次次出門
 (終)

10) 陳設：다음과 같다.

〈그림1-2〉



11) 祝文: 祝文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장집에 보관한다. 醺神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干支 云云 敢昭告于

醺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每到歲首 設享誠力 昭明在上 造化莫測 願爾蒼生 仰望恩德 攸靈攸司 顧視民族 衣我粒我 莫匪其極 燭動和氣 穰拔疾厄 雨順風調 三農洽足 豐登五穀 蕃息六畜 海女採業 物產麗錯 鰯魚其類 如崗捉得 順風駕帆 商財利益 千災水釋 百福雲作 日吉辰良 陳此菲薄 若是保佑 報賽無歇 俾我一鄉 終歲安樂 謹以牲幣 脯醢菜果 醴齋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12) 豫兆: 行祭中이나 後에 말이나 평의 울음소리가 들리면吉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면凶하다고 한다.

13) 飲福: 제를 지낸 후 음식은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祭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IV. 巫俗信仰

堂儀禮

이 마을에는 본향신이 있고 그 神들의 상주처인 堂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본향당을 바다 윗쪽에 있다고 해서 웃당 이라고 부른다. 神의 내력담이라고 할 수 있는 본풀이는 전해지지 않고 그 이름만이 전해져서男神인 나주판판과 女神인 궁전요왕대부인이 있다.

이 두 神은 부부로서 늘 당집에 상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호적, 출산, 사망, 생업 등 생활전반을 관장하며 수호해 준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어부와 해녀들의 생업을 수호해 주는 神이 넷이나 있다. 부부관계의 神인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 큰도안전, 큰도부인, 중의대사이다. 이 神들은 포구안으로 드나드는 어선, 그리고 해녀, 어장 등 어업과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하며 모두 이 마을 해변가 속칭 “남당”이라고 하는 곳에 돌담을

쌓아 마련한 堂안에 좌정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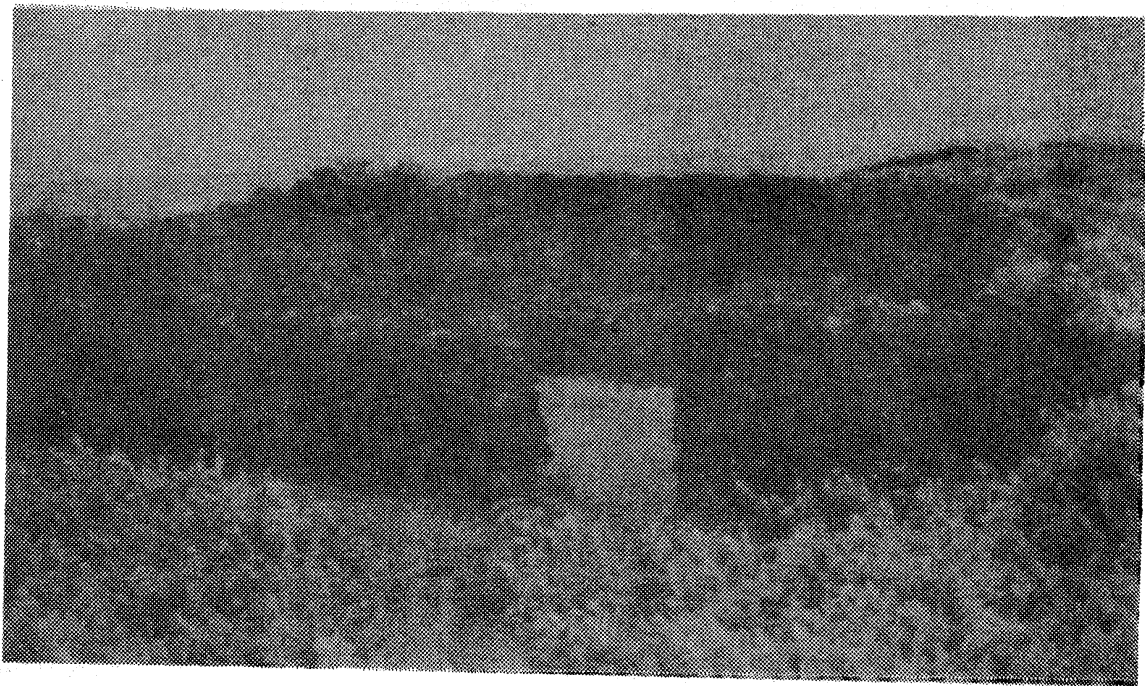
그 堂안에는 석단을 만들어 제단을 삼았는데 중의대사라는 神만은 따로 좌정해 있다. 왜냐하면 다른 神들은 모두 부정한 음식 곧 돼지고기를 싫어하지만 중의대사만은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신앙민들로부터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생업수호신으로는 이 외에도 목축과 관련된 神이 있고, 그 神들의 상주처인 堂이 있는데, 神의 이름은 쇠(牛)할으방, 쇠(牛)할망이라 한다. 이 신들은 이 마을 동구밖 속칭 “당머세”라고 하는 곳에 좌정해 있다.

이 다음에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마을 출산을 돕는 조산신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의 질병, 특히 피부병의 치유⁷ 관장하는 질병수호신이다. 조산신은 이 마을 섯동네 해변 속칭 “신영물”이라고 하는, 늘 물이 솟아 흐르는 구멍에 좌정해 있다고 믿는 神이다.

이 마을에 좌정해 있는 열 한 位의 神들을 위한 祭儀는 그 기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째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날에 공동으로 제를 올



아 랫 당

리는 정기적 祭儀이고, 둘째는 마을 신앙민들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堂으로 찾아가 제를 올리는 부정기적 祭儀이다.

정기적 祭儀에는 첫째 정월 초하룻날 웃당에서 “뽕매 단속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변순력신과세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러가지 기(旗)들을 단속하는 간단한 祭儀다.

둘째는 정월 2~4일에 웃당을 중심으로 마을 전역에서 “대변순력신과세제”가 있다. 이 의례는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 수호해 주는 본향신의 상징물인 당기를 비롯한 여러 기들이 마을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신앙민들로부터 신과세를 받고 또 신앙민들에게 1년의 운수를 점쳐 주는 곳이다.

여기에서 심방은 굿의 첫머리인 초감제를 비롯하여 그 동네 동장, 반장, 그리고 상단골 순으로 모든 동네 사람들의 열명(列名)을 노래로 올려 본향신에게 축원한다. 그리고나서 여러 단골들이 본향신에게 세배도 올린다. 맨 나중에는 신앙민들 각자 계절별로 1년 운수의 모든 것을 점받고 또 동네의 운수도 받는다. 그리고나면 한 동네의 “대변순력신과세제”는 모두 끝나고 이내 굿소리를 울리며 다른 동네로 향한다. 이를 “순력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변순력신과세제”는 이 마을 여섯 동네에서 행해진다.

세째는 정월 14일에 웃당을 중심으로 “뽕부림대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마을 사람들 1년 삶의 모든 것을 본향신에게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올려지는 祭儀로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① 초감제 : 굿의 첫머리로서 당곳에 모셔질 여러 신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와 날짜 그리고 굿을 올리게 되는 연유등을 알린다.

② 예명올림 : 여러 단골들 순으로 모든 참석자들의 명단을 축원하는 제차다.

③ 본향듬 : 본향이란 마을 사람들의 생사와 호적 곧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 일체를 관장하는 마을 본향신이고, 듚이란 그 신을 모셔들임 곧 본향신을 굿판으로 현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군문열림 : 본격적인 “군문열림”에 들어가기 앞서 “뽕포도업침”과 “날과 국섬김” 그리고 이 당곳을 올리게 된 사연인 “연유담음”등 초감제 때의 주사설 내용을 한번 더 간단히 창해두고 나서 본격적인 “군문열림”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시작된다. 수심방은 요란한 무악에 맞춰 신제의 문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춤을

추고 나서 무점으로 문열림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여러 신앙민들에게 전한다.

⑤ 자손들 절 시키고 소지 사름: 본향신이 굿판으로 왔으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삼헌관이 마을을 대표하여 주잔과 역가상을 올린다.

⑥ 도산받음: 마을 전체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점으로 그 神意를 알아보는 제차다.

⑦ 각산받음: 1년간 마을 공동의 운수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여러 신앙민들마다 한해의 운수를 계절별로 각자가 알아본다.

⑧ 철변: 제상의 제물을 모두 내려놓고 제물을 조금씩 따서 일정한 구멍에 담아 버린다.

네째는 정월 보름날 알당을 중심으로 “요왕황제국대제”가 있다.

이것은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는 용왕신들을 비롯한 이 마을에 늘 좌정해 있는 어업 수호신들에게 이 마을 신앙민들의 1년의 풍등과 평안을 빌고 운수를 점쳐 보는 것으로 “영등굿”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는 7월 14일 웃당에서 “백종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마증식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다.

여섯째는 8월 14일 웃당에서 “추석제”가 있다. 이것은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곱째는 10월 15일 알당을 중심으로 “대제(大祭)”가 있다. 이것은 마을의 모든 공동수호신들을 청해다가 기원을 하는 祭儀로서,

초감제→예명올림→신청해들이기→도산받음→지드림→각산받음→만관 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덟째는 선달 그믐날 웃당에서 “개탁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하는 본향신에게 온 마을의 1년을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제의다.

이렇게 정기적인 당의례는 8가지로 나누어 행해지고 있다.

부정기적인 당의례는 어린이들의 질병 수호신인 “오분작할망”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당의례가 있고 목축수호신을 위한 당의례가 있다.

이렇게 부정기적인 당의례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V. 個人信仰

1. 土神祭

1) 祭名：土神祭

2) 祭神：土地之神位

3) 祭日：正月에 가족의 복덕에 맞게 택일하여 지내며 3년에 한 번씩 지낸다.

4) 祭場：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 울타리 안의 청결한 뒷뜰에 제단을 마련하여 지낸다.

5) 祭官：집안이 어른이나 혹은 나이 많고 유식한 남자가 제관이 되며 3일 정성을 한다.

6) 祭物：메(쌀, 조), 명태, 오과(五果), 닭

7) 行祭：일반 祭儀와 비슷하며 축문은 매년마다 써서 올린다.

이 밖에도 조왕제, 기우제, 해신제 등이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며,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다면 안칠성, 밧칠성을 모시는 집이 있다. 그래서 안칠성 및 밧칠성을 제주도에서 모시게 된 유래를 조사해 보았다.

2. 안칠성, 밧칠성의 유래

칠성뱀은 강남 위영산골에서 나왔다. 장씨성과 송씨성을 가진 집안에서 하늘의 북두칠성 별자리를 모시다가 그 칠성의 정기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7살 되던 해 아버지 어머니가 벼슬을 하러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자아이를 데려 갈 수가 없어서 그 집 종에게 말하기를 ‘이아이를 밥 잘해 주고 하면서 키우고 있으면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서 종문서를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는데, 그 애기는 그 어머니의 말을 밖에서 다 듣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따라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애기는 밤낮 울고 다니는데, 그때 마침 중이 그 애기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밤에 데려놓고 낮에는 업고하면서 키웠다.

한편, 그 집 중은 애기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부모가 돌아와서 애기씨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중이 지나갔다. 그 집 어머니는 중에게 ‘우리애기 어디 있는지 점이나 쳐줍서’하고 부탁하니 그 중이 하는 말이 “부르면 들을 만하고 외치면 들을 만한 곳에 있다” 하여 찾아 보니 올래(대문)에 있는 ‘물팡돌’(옛날에 대감들이 말을 타고 내릴때 편하게끔 하게 만들어 놓은 돌)아래에 있었다.

자세히 가서 살펴 보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뱀의 몸이라. 배도 새끼를 배어 불룩하니 영락없는 뱀의 모습이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양반의 집에서 사람을 죽이면 양반채면이 안서니까 무죄석함에 담아서 띄워 보내기로 하고 바다에 띄웠는데, 강남에서 차차 흘러 흘러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마을마다 당(堂)이 있어 정의에 광정당, 대정가면 광인당, 목안가면 2시락당, 돌외낭등 당에 들려고 해서 제주 400리 길을 전부 다녀도 당(堂)한집이 무시위시 무시 못하고 김녕으로 들어서려는데 바당절(파도)에 밀려 “취에기통”에 들었는데 일곱 해녀가 물에 들어 가다가 그 무죄석함을 발견하고 보물인 줄 알고 서로 사기가 먼저 보았다’고 싸우고 있었다.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싸우느냐고 묻자 해녀들은 사실을 말하자,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 무죄석함을 깨어 보아서 그 속에 금이나 은이 있으면 일곱 해녀가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는 그 힘을 달라고 하니, 좋다고 하여 깨어 보니 뱀 일곱마리가 와망와망 모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서로들 질겁하여 달아나 물에 들어 물질을 하는데 물이 너무이 끈질기게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두 아파서 죽어갔다. 그래서 집을 지니 집장이 하는 말이 “남의 나라 칠성한집을 박대한 죄”이니 그 바닷가로 가서 칠성한집님 잘못하였읍니다 하면서 빌고 칠성맞이 곳을 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무죄석함을 발견한 곳으로 가서 곳을 하였다. 그랬더니 어름산에 구름녹듯 병이 깨끗이 좋았다. 그 후 해녀들은 바닷가에 들어가면 큰전복, 큰소라등 망시리 가득 잡을 수가 있었다.

한편 뱀 일곱마리 즉 어머니와 딸 여섯 형제는 칠성맞이로 인해 잘 얻어먹었으니 이제는 제주시로 구경을 가자 하고는 한라산 영산가서 실컷 구경하고 다음은 제주시내 가서 고운사람도 많으니 구경거리가 많을 것이다 하고는 고운 새옷으로 갈아입고 제주성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데 동문, 서문지기 세어서 못 들어오고 남문, 북문 역시 세어서 못 들어오니 산지물쪽으로 해서 물내리는 구멍으로

제주성에 들어 왔는데, 지금 제주시 칠성골은 뱀 일곱 마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칠성골이라 하고, 그 곳을 통해서 배부른 동산에 와서 쉬면서 향교 상천 구경하고 배고프니 다시 산지물에 가서 빨래팡에 엮전 일곱개로 변색을 하여 들어누워 있었다.

마침 그때 송침지 딸이 아침 일찍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엮전 꾸러미를 보고 기뻐서 물을 길고 엮전 꾸러미를 치마통에 담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워 왔다고 하며 치마통을 보이니 돈이 아니고 뱀 7마리가 와망와망 하니 어머니가 쌀 한줌을 던져주면서(치마통을 벌리며) 우리 조상이거든 이 치마통으로 들어오고 남의 조상이거든 온 길로 되돌아 갑서 하니 그 뱀들이 쌀을 먹으며 치마통으로 들어오니 그 뱀을 들고 고팡에 들어가 통쾌(항아리)에 넣으면서 “먹을 년도 나습서 입을 년도 나습서” 하며 거기에 넣었는데 그것이 안칠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마리도 각자 과수원에 과일을 풍부하게 하는 등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칠성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걱정없이 풍부하게 해주고 밧칠성은 자손번창 및 수명을 길게 해준다. 따라서 문 달리면 문전이요 솔 앉으면 조왕이며 쌀통 놓으면 안칠성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뱀을 무시할 수가 없다.